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Ballantine's Road to Scottish Open Tournament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를 향한 티샷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2014 Ballantine's Golf Limited Edition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The 2nd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설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쟁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Special Interview

눈 덮인 필드 위에서 만난 모텔 성취 & 김효진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 신뜻하게 즐기는
발렌타인 17 칵테일

Great Moments of the Heritage Brands

세기를 넘어서는 불변의 헤리티지, 발렌타인 & 몽블랑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 STAY TRUE를 말하다

발렌타인이 이번에 선보이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꾸준한 진정성을 화두로 한다.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블렌딩을 일관되게 지켜오며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선사해 온 발렌타인이기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발렌타인은 올해부터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Stay True> 광고 캠페인을 통해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200여 년간 변함없는 맛과 향으로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전하고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지향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광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발렌타인이 말하는 <Stay True>에 부합하는 인물은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을 흉내 내거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묵묵히 자신만의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빛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하는 사람. 주위의 의견이나 시간의 흐름에도 흔들림 없이 단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그 생각에 충실한 사람을 발렌타인은 'Stay True'한 사람으로 일컫는다. 따라서 그들은 누군가와 쉽게 비교되지 않으며 그 누구와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즉 'Stay True'라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는다는 것은 그를 대체할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의 강렬한 존재감과 올곧은 행보는 결국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연산만큼이나 긴 세월이 지나도 나는 그대로 나일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그가 자신의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확신을 변함없이 이어 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깊은 인상과 오랜 감명을 남긴다. 1827년부터 진정한 캐릭터를 창조하는 진귀한 블렌더로서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발렌타인과 정확히 부합하는 부분이다. 발렌타인은 앞으로도 '자신만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Stay True), 깊은 인상을 남기라(Leave an Impression)'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
 발렌타인은 <Stay True> 광고 캠페인을 통해 발렌타인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0년의 세월은 내게
연륜과 지혜를 가져다줬지만
내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Magazine

8th. vol.



CONTENTS



Heritage

07. Great Moments of the Heritage Brands
세기를 넘어서는 불변의 헤리티지, 발렌타인 & 몽블랑

Lifestyle

15. Ballantine's Snow Golf Opening Day
발렌타인 스노골프, 그 두 번째 여정의 시작
18. The 2nd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설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쟁,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26. Special Interview
런웨이가 아닌 눈 덮인 필드 위에서 만난
모델 성희 & 김효진
28. KLPGA Ladies Golf Tour with Ballantine's
발렌타인, 여성 골퍼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다
KLPGA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34. KPGA Golf Tour with Ballantine's
골퍼들의 STAY TRUE, 그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
KPGA 2014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42. Ballantine's Road to Scottish Open Tournament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를 향한 티샷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44. Column for Golfers
2014 미국 올랜도 골프쇼를 참관하고 /
페르노리카 그룹의 대한민국 골프 사랑은 주욱~ 계속된다!

Innovation

49. 2014 Ballantine's Golf Limited Edition
발렌타인과 골프, 그 의미 있는 만남을 이어 가다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Art of Blending

61. Ballantine's Mentoring Class @THE ANANTI Club, Seoul
골퍼들을 위한 위스키 테이스팅의 시간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64. Ballantine's 17 Cocktail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 산뜻하게 즐기는
발렌타인 17 칵테일

Ballantine's & Women

67. Exciting Shot on White Field
한겨울의 정적을 깨는
여성 골퍼들의 거침없는 도전

Ballantine's Pick

71.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
74. EPGA / 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Great Moments of the Heritage Brands

세기를 넘어서는 불변의 헤리티지 발렌타인 & 몽블랑

오래된 것이라고 모두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생각과 기술, 정신이 그 브랜드의 유산과 역사를 만든다.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면 자연히 떠오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두 헤리티지 브랜드가 만났다.

세기를 넘나드는 헤리티지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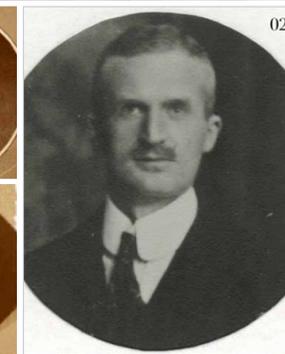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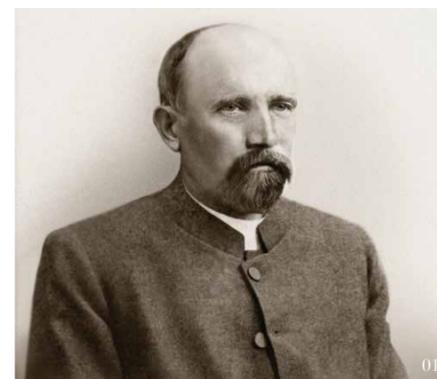
182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한 작은 상점. 바로 이곳에서 세계적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Ballantine's)'의 역사가 시작했다. 발렌타인의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이 당시 19세의 나이로 첫 상점을 열고 위스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듯이 산업혁명 시기라 모든 것들은 급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굳이 힘든 위스키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험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또 위스키를 오래 숙성시켜 '블렌딩'한다는 개념 또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진 못했다. 그러나 조지는 13세부터 5년간의 견습 생활 동안 에든버러의 식료품상이자 와인 위스키 상인이었던 앤드류 헌터(Andrew Hunter) 아래에서 배운 모든 것들과 천부적인 능력,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차츰 기업가적인 면모를 보이며 명성을 쌓아 나간다. 또 1853년에는 가까운 친구인 앤드류 어셔가 숙성 기간이 서로 다른 몰트 위스키를 혼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이 새로운 기술을 바로 자신의 사업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조지 발렌타인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고연산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하는 블렌딩 기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다른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몰트 위스키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려할 때 조지는 반대로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된 맛의 고급 위스키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한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맛과 향을 내는 독자 브랜드, '발렌타인 17'의 전신은 그렇게 탄생했다. 바로 발렌타인이 세계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 토대가 되는 순간이다.

독일의 명품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몽블랑(Montblanc)'은 독일 함부르크 태생의 은행가 알프레드 네헤미아스(Alfred Nehemias)와 베를린의 엔지니어 아우구스트 에버스타인(August Eberstein)의 여행을 계기로 시작했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휴가차 함께 미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개량된 만년필을 처음 접하게 됐다. 이 펜은 잉크가 자주 끊기거나 왈칵 쏟아져 나오던 기존 만년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잉크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분수라는 뜻의 '파운틴(Fountai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여행에서 돌아온 해 독일 함부르크의 문구 상인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Claus-Johannes Voss)의 지원을 받아 만년필 제조를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 투자를 꺼렸지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던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는 만년필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사업에 바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 세 사람은 1908년 함부르크 지역에 '심플로 필러펜 컴퍼니(Simplo Filler Pen Co.)'를 설립하고,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형태로 만년필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나갔다. 운영 1년 후인 1909년부터는 자사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만년필 '루즈 옛 느와르(Rouge et Noir)'를 시장에 출시했고, 이내 이 제품이 고품질의 만년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몽블랑'이란 단어를 제품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오늘날 만년필을 비롯한 필기구, 가죽 제품, 시계, 주얼리, 향수 등을 제작, 판매하는 '몽블랑' 브랜드의 시작이었다.

>>

01. 발렌타인의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

02.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몽블랑을 설립한 아우구스트 에버스타인, 알프레드 네헤미아스,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



01

Heritage

Journey to Ballantine's

깊은 풍미의 위스키 한 잔,
정밀하게 다듬어진 펜으로 써 내려가는 한 자 한 자,
그 특별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페이지.



>> 숭고한 장인정신과 열정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발렌타인과 몽블랑의 명작들

브랜드 유산을 반영하는 심볼

발렌타인 위스키의 모든 라벨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시그니처와 GBS 마크, 하단 톱니커팅 스타일과 함께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crest)을 반영하고 있다. 쉬이 변하지 않는 발렌타인만의 정통성과 헤리티지를 보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발렌타인의 역사성, 장인정신, 혁신성을 대변하는 문장은 1938년 당시, 스코틀랜드 왕립 문장원으로부터 수여받은 영광의 상징이다. 왕립 문장원은 당시 '그랜트 오브 헤럴딕 암즈(Grant of Heraldic Arms)'라는 문장을 수여하면서 발렌타인을 '스코틀랜드 귀족 사회의 품격 있는 브랜드'로 인정한 바 있다.

이 특별한 문장은 깃발, 그리핀, 방패, 유니콘, 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깃발은 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의 국기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명품과 영예의 상징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품질과 자부심을 담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핀은 발렌타인의 고귀함을, 방패에 새겨진 물, 보리, 증류기, 오크통은 최상의 원료와 제조 과정으로 고품질 위스키를 생산하겠다는 발렌타인 가문의 의지를 반영한다. 왕가의 문장에만 사용될 수 있는 유니콘은 그 뿔이 기적과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가지며, 휘장에 적힌 'Amicus Humani Generis'라는 모토는 '모든 인류의 친구(A Friend To All Mankind)'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MONTBLANC

01. 몽블랑은 '배틀링 볼드(Battling Bold)'체로 쓰여진 로고와 눈 덮인 몽블랑 산 정상을 형상화한 '몽블랑 스타(Montblanc Star)' 심볼을 사용하고 있다

몽블랑의 심볼 역시 특별하다. 1909년 독일 특허청에 몽블랑을 상표 이름으로 등록한 심플로 필러펜 컴퍼니는 이듬해, 기존에 출시했던 루즈 넷 노와르를 개선해 '몽블랑'이란 이름으로 새 만년필을 출시하게 된다. 당시 몽블랑의 캡, 즉 만년필 뚜껑의 끝 부분은 알프스 산맥의 눈 덮인 정상을 연상시키는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의 사촌은 우연히 어느 날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인 몽블랑과 심플로 필러펜 컴퍼니가 만든 만년필의 고품질을 연결해 언급했다. 심플로 필러펜 컴퍼니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몽블랑을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부분의 필기구에는 몽블랑이란 상품명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3년에는 흰색으로 된 캡의 끝 부분을 스타 문양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몽블랑 스타(Montblanc Star)'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하여 현재까지 몽블랑만의 '배틀링 볼드(Battling Bold)'체와 함께 핵심 심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수성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화이트 스타 엠블럼은 이렇게 탄생했다.

>> 02.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좌)과 최근 새롭게 바뀐 발렌타인의 로고(우)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역사를 투영하는 명작들

발렌타인의 명성이 당시 에든버러와 글래스고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 까지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지 발렌타인은 두 아들이 이끌게 했던 에든버러와 글래스고의 사업체를 한 회사로 통합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그리고 1881년 발렌타인사는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위스키 라벨에 넣은 위스키를 세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으며, 이를 잡지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조지 발렌타인의 남다른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인 생각,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해외에서도 최고의 위스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했다.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엄선한 40여 가지의 최상급 원액이 발렌타인만의 방식으로 블렌딩되고 오랜 세월을 거쳐 드디어 1930년, '발렌타인 17'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명실상부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작이자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인 발렌타인 17은 부드러운면서도 균형 잡힌 블렌딩의 깊은 맛과 향이 오랜 여운을 남기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슈퍼 프리미엄급 스카치 위스키로 단숨에 자리잡았다. 또 이 특별한 블렌드는 매혹적인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 명성에 걸맞게 권위 있는 각종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의 수상 경력만도 80회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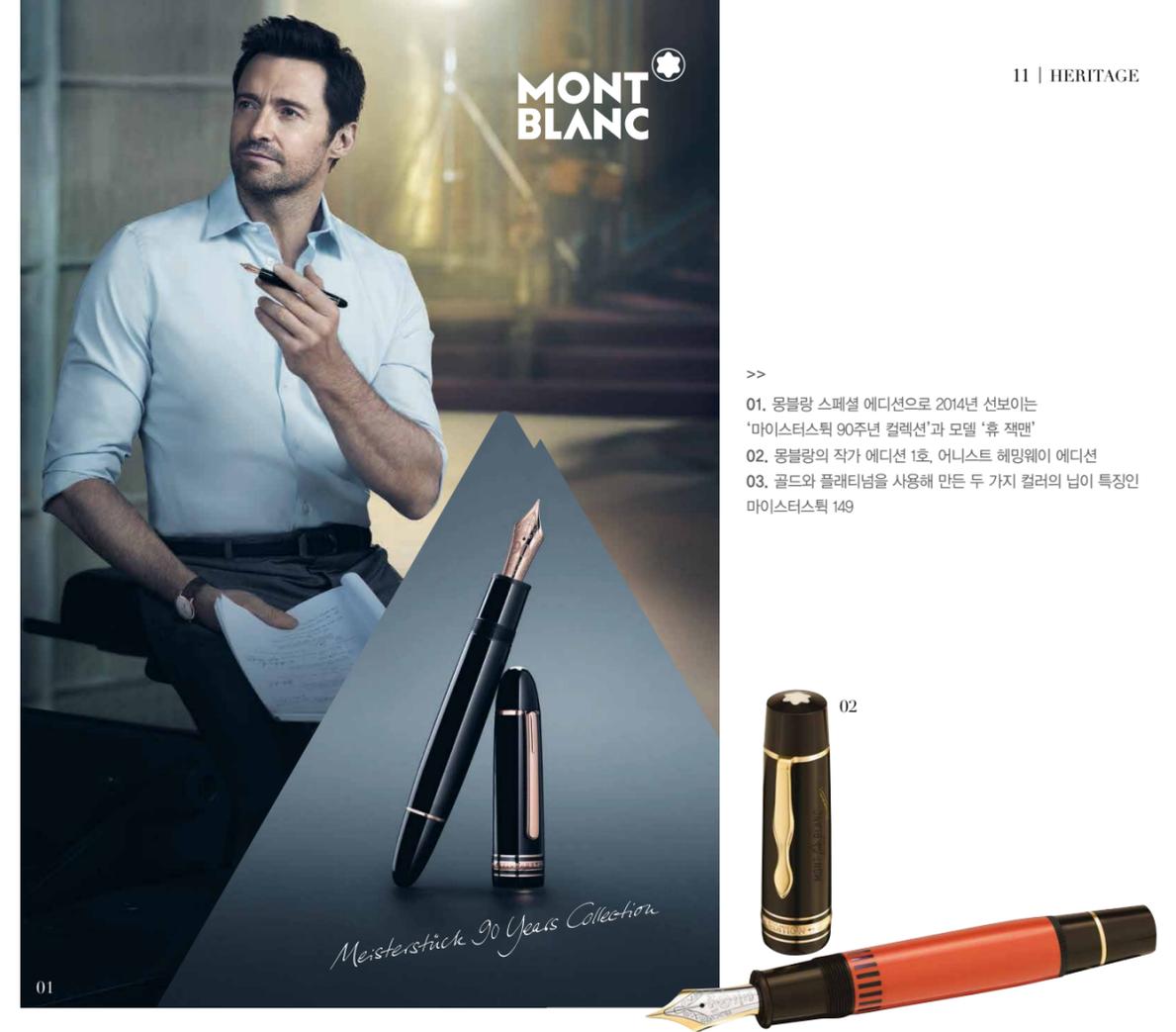
2012년에 선보인 '발렌타인 40'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과 마스터 블렌더들의 집념과도 같은 염원으로 끝끝내 탄생된 전례 없는 귀한 걸작이다.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Sandy Hyslop)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처드 폭스(Richard Fox), 이 두 거장의 재능과 기술, 열정, 완벽을 향한 염원과 기다림의 미학이 담긴 일대의 합작품이자 위스키 역사의 새로운 서막을 연 위스키다.

발렌타인 40은 매년 전 세계에 단 100병만 판매되고 있다. 40년의 세월이면 위스키 원액의 약 80%가 증발해 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

실까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보틀에 담긴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유리 표면에 전문적으로 새겨진 발렌타인의 문장과 장식, 홀마크 등은 모두 순도 90% 이상의 스텔링 은으로 일일이 수제작되며, 보틀마다 1부터 100까지의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어 그 섬세한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더한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은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탄생했다. 2010년에 출시한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증류소 200주년 에디션'에 이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작년 11월에 선보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에 이르기까지 총 4가지의 스페셜 에디션들을 매년 한정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것.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은 발렌타인 17 특유의 개성은 그대로 지니면서도 각 지역과 증류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몰트의 특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컬러와 맛, 향, 여운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 특별한 에디션은 위스키 애호가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는 위스키의 새로운 스타일과 독특하고 다양한 카테일 레시피로 그 매력을 전하고 있다.

- >>
- 01. 2010년부터 매년 한정 출시되고 있는 4가지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과 발렌타인의 대표작, 발렌타인 17
 - 02. 매년 단 100병만 생산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정수, 발렌타인 40



- >>
- 01. 몽블랑 스페셜 에디션으로 2014년 선보이는 '마이스터스틱 90주년 컬렉션'과 모델 '휴 잭맨'
 - 02. 몽블랑의 작가 에디션 1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에디션
 - 03. 골드와 플래티넘을 사용해 만든 두 가지 컬러의 남이 특징인 마이스터스틱 149

몽블랑의 대표적 상품 라인인 역시 설립 초기부터 제작해 온 만년필이다. 이 각각의 제품과 탄생 배경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몽블랑의 100여 년 역사를 가히 더듬어 볼 수 있다. 심플로 필러펜 컴퍼니의 첫 번째 만년필, '루즈 옛 느와르(Rouge et Noir)'는 소설 '적과 흑'의 원제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름처럼 만년필의 몸통 부분인 배럴은 검은색 에보나이트 소재로, 캡의 끝 부분은 붉은색 에보나이트로 포인트를 주어, '빨간모자(Little Red Riding Hood)'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또한 잉크가 새지 않는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독일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924년에는 독자적인 기술이 반영된 펜촉, 즉 수제 '납'을 기반으로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을 출시했다.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즉 '명작'이라는 뜻이다. 이 제품을 통해 몽블랑은 명품 만년필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이후 마이스터스틱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계속 출시되고 있다. 1952년 출시된 '마이스터스틱 149' 만년필은 마이스터스틱 시리즈 중 표준 모델로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모델로 지금까지 총 12세대 모델이 출시됐다. 이 제품의 납 부분은 골드와 플래티넘이 적용된 투 컬러로 아르누보풍의 장식을 새긴 것이 특징이며 몽블랑 산의 높이를 뜻하는 '4810'이라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다.

몽블랑이 고급화를 꾀하면서 1983년 출시한 '마이스터스틱 솔리테어 컬렉션'은 모델에 따라 순금과 순은이 장식되어 사용된 최고급 라인이다. 그 중 '마이스터스틱 솔리테어 149' 만년필은 순금으로 외형을 장식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년필'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4,810개의 다이아몬드로 배럴을 장식한 '마이스터스틱 솔리테어 로얄' 또한 1994년 당

시 약 1억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같은 부문 기네스북에 다시 한 번 올랐다.

한편 몽블랑은 예술과 문학,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위인을 기리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예술가와 대문호들의 이름을 따 꾸준히 출시해 오고 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인물의 공로를 치하하는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에디션'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의 일생과 작품을 재조명하기 위한 '작가 에디션'이 대표적이다. 로렌조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우리나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하며 이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의 주인공이 되었다. 작가 에디션으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아가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 등이 각자의 서명이 각인된 독특한 디자인의 한정판 모델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 몽블랑은 필할 수 없는 장인정신의 90주년을 기리며, 2014년 스페셜 에디션인 '마이스터스틱 90주년 컬렉션'을 선보였다. 192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최초로 제작된 이래,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상징하는 마이스터스틱 컬렉션은 전형적인 149 만년필부터 클래식과 르그랑 사이즈 만년필, 수성 펜과 볼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기구에는 고급 블랙 레진 소재에 레드 골드 플레이티드 장식으로 제작되었으며, 1924년과 같은 슬리브 커버로 포장되어 있는 특별 기프트 박스에 제공된다. 또한 이 만년필을 통해 우아하게 인그레이빙되어 있는 슬리브 레드 골드 납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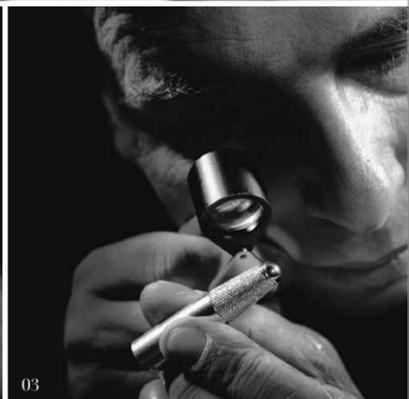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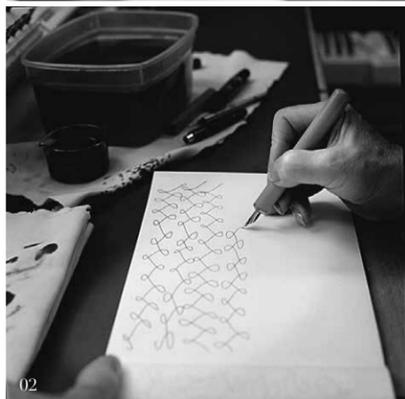


장인정신을 품은 명품

발렌타인이 전 세계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은 명장의 블렌딩이 만들어 낸 맛의 비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엄선된 40여 가지의 최상급 원액이 마스터 블렌더의 예술적인 블렌딩을 거쳐, 수작업으로 선별된 오크통에서 오랜 기간 숙성을 거치면, 다양한 맛과 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발렌타인만의 세련된 풍미로 재탄생하게 된다.

발렌타인에 있어 '블렌딩'이란 단순히 위스키를 정확한 비율에 의해 섞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각기 다른 증류소에서 만들어진 최상급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이인 위스키가 마스터 블렌더의 오감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발렌타인이 선사하는 복합적인 맛과 향의 완벽한 조화와 일관된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스터 블렌더의 예술과도 같은 블렌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들은 위스키를 제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헌신과 끈기로 지켜 보며 발렌타인만의 전통과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숭고한 수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10년 전에 블렌딩된 발렌타인과 오늘 블렌딩한 발렌타인이 동일한 맛과 향을 낼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진다. 또한 약 1,000가지의 향을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을 맡는 것만으로 각각의 원액을 구분해 낸다. 이 역할은 약 200여 년이 넘는 발렌타인의 역사 속에서도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을 포함한 단 5명의 마스터 블렌더에게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다. 오늘날 발렌타인 위스키를 '아트 오브 블렌딩(Art of Blending)'의 결정체로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몽블랑 역시 1906년 이래 줄곧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엄격한 생산 과정을 통해 만년필을 생산하고 있다. 평균 20~40년 경력을 가진 숙련된 장인들이 한 자루의 몽블랑 만년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00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18 캐럿 골드 nib에 가하는 복잡한 인그레이빙부터 단단한 이리듐(iridium)으로 제작된 nib의 끝부분을 갈고 모든 표면을 손질하며 잉크가 흐르게 될 중앙의 구멍을 자르는 힘든 작업들, 완성된 펜을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대부분이 수작업을 거친다. 마스터들은 오직 완벽한 한 자루의 만년필을 위해 종이에 직선을 그리며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느끼고, 필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잉크가 나오면서 발생하는 소리는 어떤지 등 모든 감각에 집중한다.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이 출고되며, 몽블랑은 이 장인들을 '소울-메이커(soul-maker)'로 묘사한다. 이렇듯 몽블랑의 마스터 개개인 열망의 완벽한 대상인 단 하나의 제품이 소유자에게는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끈기 있게 연마한 재능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있다. 발렌타인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블렌딩이라면, 만년필에 있어서는 만년필의 심장과도 같은 펜촉, 즉 nib을 만드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nib은 그 품질과 모양에 따라 필기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nib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몽블랑은 nib을 자체 생산하는 몇 안 되는 만년필 제조사이며, 다양한 문양을 nib에 새겨 차별화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몽블랑의 nib은 각각의 에디션, 컬렉션에 따라 고유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리미티드 에디션의 경우에는 몽블랑 정상의 높이를 상징하는 4천 8백10개만 생산하고 그 후엔 스템핑 무늬 형판까지 파기시킨다.



01.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02. 모든 몽블랑 nib은 필기감의 부드러움을 위해 완성 후 필기감 테스트를 거친다
03. 몽블랑의 모든 제작 과정은 장인들의 정밀한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성공을 상징하는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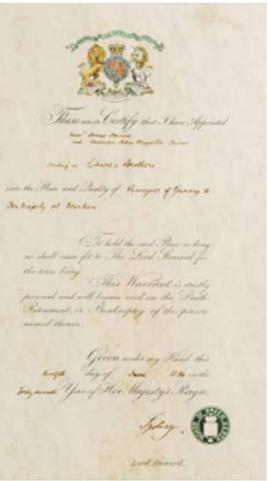
발렌타인은 일찍이 영국 왕실로부터 그 품질을 공인 받은 품격 높은 브랜드다. 1895년, 스코티시 산을 등반하고 돌아오던 빅토리아 여왕이 발렌타인 위스키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과 향에 감동하여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한 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다. 로열 워런트는 당시 왕실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증서이자 고급 위스키로서의 위상을 증명하는 결과물이었다.

이렇듯 당시 상류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19세기부터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 온 발렌타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와 위스키 애호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CEO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로 매해 손꼽히고 있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 국내 500대 기업의 CEO 20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양주 부문에서 발렌타인이 'CEO 명품'으로 뽑혔다. 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양주 부문 선호 브랜드 조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11년 연속 CEO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985년 영국의 알프레드 던힐사(Alfred Dunhill Ltd.)에 인수된 이후, 몽블랑 브랜드는 럭셔리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1987년 '노버트 플라트(Norbert Platt)'가 CEO로 취임한 이후 더욱 구체화됐다. 노버트 플라트는 몽블랑의 제품 중 20달러 이하의 제품은 생산을 중단시켰고, 마이스터스틱 시리즈를 순금과 순은으로 장식한 제품 라인 '마이스터스틱 솔리테어 컬렉션'을 비롯한 고가 제품과 높은 가격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연이어 출시했다.

이를 통해 몽블랑 브랜드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기업의 CEO나 임원 등 상류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몽블랑 브랜드는 프리미엄 만년필 시장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많은 유명인사들이 몽블랑의 만년필을 애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춘(Fortune)에서는 몽블랑을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비즈니스맨들이 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아이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몽블랑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에게 있어서도 신분과 가치를 표현하는 소장품으로써 펜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한다. ②



>>
01. 4,810개의 다이아몬드를 배럴에 장식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년필로 기네스북에 오른 마이스터스틱 솔리테어 로열
02. 독일과 프랑스 우호조약 당시,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한 미국의 J.F. 케네디 대통령과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1963)
03. 조지 발렌타인에게 왕족 칭호를 내리고 로열 워런트를 수여한 빅토리아 여왕
04. 왕실의 공인 인증서, 로열 워런트

02

Lifestyle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추운 겨울 눈 덮인 필드에서의 환상적인 티샷,
골프의 성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꿈 같은 라운딩,
이 모든 상상이 발렌타인을 만나 현실이 된다.



Ballantine's Snow Golf Opening Day

발렌타인 스노골프 그 두 번째 여정의 시작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발렌타인 스노골프'는 겨울철 라운딩에 목말라 있던 골퍼들에게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지난 1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는 제2회 발렌타인 스노골프가 개최됐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스노골프 정규 코스인 9홀로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가 추가되어 라운딩의 재미를 더했다.

새하얀 눈밭을 향해 날리는 짜릿한 티샷

일반 정규 잔디 골프 코스보다 30% 짧으며, 단단하게 다지고 얼린 눈으로 페어웨이와 홀을 만들어 진행되는 스노골프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눈이 쌓인 필드 위에서 라운딩을 즐긴다는 독특하고 신선한 발상에서부터 시작된 스노골프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발렌타인 스노골프'는 겨우내 쉬고 있던 골프 팬들을 새하얀 필드로 불러 모았으며, 이색적인 겨울 액티비티의 매력으로 주말은 물론 주중 예약까지 꽉 찰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1월 3일,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두 번째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오프닝 행사가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열렸다. 그 서막으로 전년도 스노골프 라운딩의 스케치 영상이 상영되며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총괄 이정호 전무의 개회사가 본격적인 오프닝을 알렸으며,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과 '발렌타인 40'이 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이어 스노골프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혜택을 또한 소개되었는데, 한 달간의 기간 동안 데일리 스코어를 매일 집계해 상위 2명에게는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의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 대회 우승자에게는 발렌타인 40이 부상으로 수여된다는 점 등이 공지됐다.

오프닝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잣나무로 둘러싸인 1번홀에서의 시타 세레모니였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총괄 이정호 전무, 불빅 문경안 회장, 아난티 클럽 서울 김경진 이사, KPGA 이준영 전무, MFS 골프 전재홍 대표이사는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시작을 경쾌한 시타로 축하했다. 티샷과 동시에 색색의 연기를 내뿜으며 멀리 퍼져 나가는 컬러 볼이 눈길을 끄는 순간이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기다리던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각 그룹별 첫 경기가 이어졌다.



>>
01.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 스노골프 오프닝 행사장을 찾았다
02.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총괄 이정호 전무
03. 인상적이었던 시타 세레모니 장면



01

>>
01. 경쾌한 티샷을 날리는 (주)아트리스트뷰 송완모 대표
02.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통해 또 하나의 겨울 추억을 남겼다



02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누리는 스노골프 타임

올해는 작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경기 방식이 다소 변경되면서 참가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기존 5홀에서 정규 스노골프 운영 방식에 따라 9홀 진행으로 변경되면서 보다 흥미진진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버디 잡기', '미션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숨어 있는 홀을 배치하여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2번홀은 발렌타인홀로 지정하여 출신원 성공 시 발렌타인 17을 증정하는 미션을 내걸면서, 그린을 깔때기 모양으로 조성하여 출신원의 기쁨을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스노골프의 또 다른 매력은 남녀의 구분 없이 누구나 경기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은 가족, 친한 지인들과 한조를 구성하고 이색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추위도 잊은 채 스노골프가 선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오픈 첫날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 스노골프 경기를 마친 (주)아트리스트뷰의 송완모 대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보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즐겼다"며 "눈 속으로 숨어버린 공을 찾거나 깔때기 홀에 공을 넣는 재미는 스노골프이기에 누릴 수 있었던 이색적인 경험이었다"고 첫 라운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건축가이자 이창하디자인연구소의 이창하 대표는 "겨울에 골프를 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다"고 스노골프의 매력을 언급했다.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스노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잠시 쉬어가는 그늘집에서 '발렌타인 17 초콜릿 샷', '발렌타인 17 핫초코' 등을 마시며 발렌타인 위스키의 매력 또한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 한 달간의 발렌타인 스노골프 여정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소중한 이들과 함께한 라운딩을 통해 기억에 남을 또 하나의 추억을 마음 속 깊이 남겼다. ②



03

>>
03. 신중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이창하 건축 디자이너
04. 참가자들은 그늘집에서 발렌타인 윈터 카테일을 맛보며 언 몸을 녹이기도 했다



04

Mini Interview

발렌타인 스노골프 오픈 데이, 시타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스노골프의 매력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총괄 이정호 전무

"발렌타인은 골프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골프에 발렌타인이 추구하는 혁신성을 더해, 골프의 고정관념을 깬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골프 팬들의 뜨거운 인기와 더불어 새로운 겨울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노골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추위도 잠시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참가자 분들이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순수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빅 문경안 회장

"스노골프를 통해 새해 첫 라운딩을 경험했네요. 사실 눈 위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시타자로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컬러볼이 흰 눈밭을 향해 색색의 연기를 내면서 날아가는 장면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볼빅에서는 이번 발렌타인 스노골프 기간 동안 다양한 컬러볼을 협찬해 많은 참가자들이 더욱 컬러풀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설원에서 색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난티 클럽 서울 김경진 이사

"작년 처음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개최했을 때는 사실 겨울에 골프를 치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반신반의했었어요. 하지만 많은 골프 팬들의 사랑을 통해 이제는 스노골프가 새로운 겨울 스포츠의 한 장르로서 자리잡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난티 클럽 서울의 스노골프 코스 중 개인적으로는 1번홀에서의 뷰를 가장 좋아합니다. 잣나무로 둘러싸인 티샷 지점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꼭 담아가기기를 추천합니다."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이준영 전무

"설원을 바라보며 티샷을 날리니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상쾌한 기분이에요. 늘 새로운 시도로 한국골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발렌타인 덕분에 올해도 국내에서 스노골프를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라운딩이 예정되어 있는데, 성적보다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MFS 골프 전재홍 대표이사

"시타에 임하기 전 한 여성분이 신발에 아이젠을 착용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골프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녹색의 잔디 위가 아닌 새하얀 필드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경험이었고, 마음 또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편안하게 스노골프를 즐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겨울 스포츠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정호 전무

문경안 회장



김경진 이사



이준영 전무

전재홍 대표이사

The 2nd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설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쟁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올 초 골프 팬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된 '발렌타인 스노골프', 그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이 지난 2월 7일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열렸다. 뜨거웠던 대회 열기와 특색 있는 이벤트는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추위를 잊게 할 만큼 따뜻한 기운을 북돋았다.



겨울에 즐기는 골프, 또 하나의 인상을 남기다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은 한 달 동안의 스노골프 기간 중 매일 선정하는 데일리 스코어 상위 2명에게도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승자에게 매년 전 세계에서 단 100명만 한정 생산되고 있는 발렌타인 40을 수여하는 만큼 더욱 경쟁한 경쟁을 예고했다. 대회 당일,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난티 클럽 서울을 찾아 경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추운 날씨에 대비해 방한복을 차려 입고 긴장을 풀기 위해 발렌타인에서 직접 제공하는 윈터 칵테일, '발렌타인 17 핫초코'를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또한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렸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영업총괄 김부록 전무는 개회사에서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설원에서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대회 코스와 경기 방식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진 뒤, 참가자들은 다 함께 포토존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총 21개조 80명이 결선에 참가한 이번 대회는 스노골프 정규 코스인 9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됐다. 성적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남녀 혼성 조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기에 충분했다. 반전을 선사하는 스노골프만의 다양한 요소들은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01



02



03

- >>
- 01.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발렌타인 17 초콜릿 샷
 - 02. 발렌타인 17 초콜릿 샷을 마시며 지인들과 시음 소감을 나누고 있다
 - 03. 경기에 앞서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개최됐다



05



06



07

- >>
- 04. 포토존에서 다 함께 선전을 다짐하는 모습
 - 05. 기념사를 전하고 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영업총괄 김부록 전무
 - 06, 07. 경기는 남녀 혼성조로 편성되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01

함께하는 라운딩 속 번져가는 발렌타인의 여운

경기 시작 전, 진행 요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사항을 거듭 당부했다. 눈발 위를 걷고 빙판 위에서 샷을 쳐야 하는 스노골프의 특성상 일반적인 골프에 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것. 그 때문인지 하얀 필드 위에서는 훈훈한 광경이 자주 비춰졌다. 샷을 마치고 카트로 이동할 때는 서로 손을 잡아주거나 미끄러운 지대를 미리 알려주는 등 참가자들간의 따뜻한 배려가 돋보였다. 누군가가 버디에 성공하면 다 함께 환호를 외쳤고, 안타깝게 빙판을 맞고 볼이 튕겨 나올 땐 여기저기서 아쉬움의 탄식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곳곳에서 여유로움 속 따스함이 묻어났다.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의 또 다른 매력은 대회 동선에 맞춰 준비된 다채로운 이벤트였다. 시합 전 다소 긴장된 참가자들을 위해 포토제닉 이벤트가 마련됐다. 선수들은 포토월에서 카메라를 향해 자유로운 포즈를 선보이는 등 부담감을 떨치는 모습이었다. 그늘집에서는 발렌타인 17 핫초코, 발렌타인 17 초콜릿 샷이 제공돼 장시간 라운딩으로 언 몸을 참가자들이 녹일 수 있도록 했다. 휴식원, 이글 등의 미션이 주어진 이벤트 홀도 경기를 즐기는 재미 요소 중의 하나였다.

경기를 즐기는 것 이상으로 인상 깊었던 이벤트마다의 세심한 배려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만나 볼 수 있었다. 대회 전후로 마련된 멘토링 클래스는 발렌타인의 히스토리를 전하는 의미 있는 테이스팅 시간이었다. 휴식 시간 야외 아이스 퍼팅장에서는 홀컵에서 17야드(15m) 거리의 퍼팅 성공 시 발렌타인 17 미니어처를 제공하는 미니 이벤트가 따로 열리기도 했다. 이번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을 통해 스노골프 경기에 집중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향기로운 발렌타인의 여운이 번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01. 삼삼오오 모여 포토제닉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02. 대회 당일 포근해진 날씨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다
03. 17야드 거리에서 퍼팅 성공 시 발렌타인 17 미니어처가 제공됐다



>>
04. 발렌타인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가 테이스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5. 경기를 전후해 발렌타인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가 진행되었다



모두가 하나된 축제의 밤,
그 영광의 주인공

스노골프 챔피언십 경기가 종료되고 참가자들 모두가 고대하던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은 크게 특별상과 대회상 부문으로 나뉘면서 좀 더 많은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 첫 시상은 대회 전 포토월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남긴 선수들에게 수여되는 포토제닉상으로 가볍게 시작됐다. 무대 뒤 스크린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비춰지자 관객석에서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행운상으로는 독특하게도 발렌타인의 연산을 의미하는 특별한 숫자 17, 21, 30에 맞춰 17위, 21위, 30위 선수에게 각각 서프라이즈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최저타수를 기록한 팀을 위한 베스트 팀 스코어상, 팀별 편차가 가장 적은 팀에게 수여되는 퍼펙트 밸런스상, 핀에 최대한 가깝게 다다른 선수에게 니어리스트상, 가장 많은 비거리를 날린 선수에게 롱기스트상이 시상됐다. 시상식 중간 쉬어 가는 시간에는 '마스터 블렌더를 찾아라' 이벤트, 럭키 드로우와 같은 참여 이벤트 또한 진행되어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기회를 선사했다.

올해 대회는 예상보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도와서인지 모든 선수들이 선전하며 많은 수의 동점자가 배출됐다. 이 때문에 경기 성적으로 좌우되는 대회상 부문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3위와 2위는 모두 32타의 성적을 거뒀지만, 동점자 발생 시 백스코어로 집계하는 규정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다. 뒤를 이어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우승자 발표가 예고되자 객석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의 타이틀과 발렌타인 40을 수여받은 영광스러운 주인공은 총 30타의 좋은 성적을 거둔 **고동준 씨였다.** 환한 미소를 보이며 무대에 오른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관객석에서도 진심 어린 박수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축제의 밤을 이어갔다.

Winner's Interview



2014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우승자 **고동준**

스노골프 챔피언십 우승 소감은_
작년 대회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기대치 못한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인의 플레이에 만족하는지_
오늘따라 샷을 할 때마다 굉장히 잘 들어가더라고요. 골프를 시작한 지 올해로 7년째인데, 많은 순간들 중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스노골프의 매력은_
필드에서는 라운딩을 많이 해봤지만, 눈 위에서 골프를 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눈도 밝아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는지_
개인적으로 발렌타인 30의 부드러운 풍미와 향을 좋아해서 지인들과 함께 위스키를 종종 즐기는 편입니다.

수여받은 발렌타인 40을 개봉할 것인지, 소장할 계획인지_
우선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단 100명만 생산되는 진귀한 위스키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더욱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 같네요. ☺



>>
01. 47지 원액 중 발렌타인 17 글렌토키스를 가려내는 '마스터 블렌더를 찾아라' 이벤트가 즉석에서 열렸다
02. 발렌타인의 연산을 뜻하는 특별한 숫자를 토대로 선정된 행운상 수상자들
03.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던 '발렌타인 17 글렌토키스 얼그레이' 칵테일
04. 클럽하우스 입구에 발렌타인 17, 21, 30이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다
05. 단 한 명의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발렌타인 40'



런웨이가 아닌 눈 덮인 필드 위에서 만난 모델 성휘 & 김효진

스노골프 챔피언십 대회 현장에서 큰 키와 늘씬한 몸매로 주변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모델 성휘, 김효진. 평소 '슈퍼모델 골프단' 멤버로 활약하며 골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 온 그들을 만나 스노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발렌타인 스노골프 첫 경험, 소감은_

(성휘) 처음엔 다소 낯설기도 했지만 라운딩을 통해 생각지 못한 스노골프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효진) 사실 눈 위에서 골프를 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스노골프만의 매력은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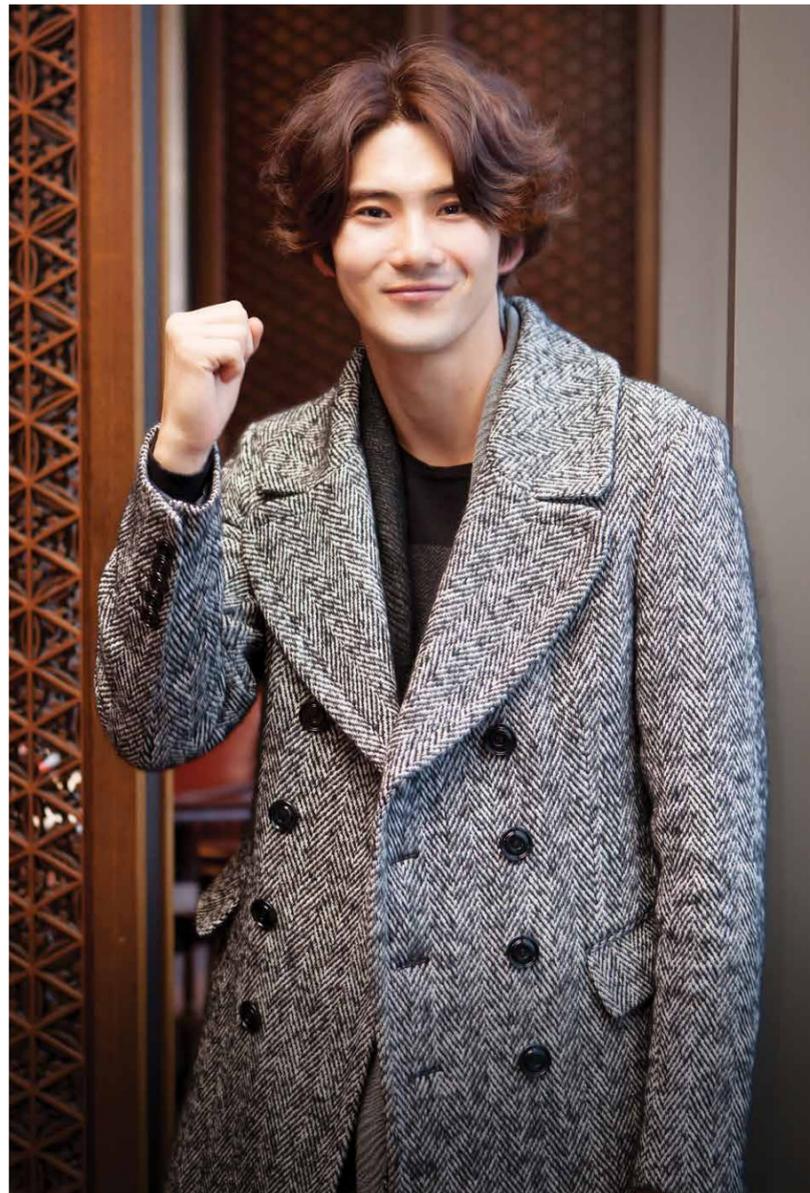
(성휘)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불이 해저드를 향해 가다가도 빙판 때문에 튕겨 나온다면... 퍼팅 거리가 1m 밖에 안되는데도 평소처럼 쉽게 못 넣겠더라고요. 경기를 하는 동안 함께한 멤버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효진) 눈이 쌓인 필드 위에서 샷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경기를 하는 동안 서로 대화도 하면서 교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골프를 즐기는지_

(성휘) 평상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편입니다. 현재 '슈퍼모델 골프단'의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김효진) 저도 '슈퍼모델 골프단'에 가입해 적극 참여하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슈퍼모델 골프단'은 어떤 팀인가_

(성휘) 올해로 창단 6년째를 맞은 골프 친목 모임으로, 슈퍼모델 출신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모델 선배들끼리 모여 라운딩도 하고 골프에 관련된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구요. (김효진)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도 슈퍼모델 골프단 자격으로 출



>>
01. 패셔너블한 골프 룩과 환철한 키로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모델 성휘
02. 슈퍼모델 골프단의 여성 멤버로서는 유일하게 대회에 참가한 모델 김효진

전하게 됐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멤버들과 함께 스노골프 체험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델 선배 동료들에게도 스노골프에 대해 소개해 줄 생각입니다.

오늘 성적은 어땠는지_

(성휘) 사실 성적에 신경 쓰기보다는 조원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라운딩을 했어요. 그 덕분인지 오히려 조 2위의 성적을 거뒀네요. (김효진) 아무래도 조에서 저 혼자 여자였으니 성적은... 그래도 평소엔 레이드 티에서 샷을 하는데, 스노골프는 남녀 구별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었어요.

효진 씨는 여성의 입장에서 스노골프를 즐겼는데_

(김효진) 저를 제외한 같은 조원 모두 남자분들이고 싱글 플레이어들이라 평소처럼 라운딩을 했다면 성적의 차이가 꽤 컸을 거예요. 하지만 스노골프는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모미 때문인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었어요.

평소 발렌타인 위스키를 좋아하는지_

(성휘) 네, 시간이 날 때면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기는 편이에요. 오늘도 경기가 끝난 뒤 발렌타인 17 칵테일 중 하나인 '발렌타인 17 글렌토크스 룽 피니쉬' 한 잔을 마셨는데, 은은한 꿀의 향이 매력적이었어요. (김효진) 발렌타인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로 여성들이 즐기기에 부담이 없거든요. ☺

— KLPGA Ladies Golf Tour with Ballantine's

발렌타인, 여성 골퍼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다

KLPGA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의 봄날,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GC에서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렸다.

발렌타인은 이 대회를 공식 후원하면서, 여성 골퍼들은 물론 많은 국내 골프 팬들에게 발렌타인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흥미진진한 역전 승부가 남긴 짜릿한 순간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6번째 대회이자 발렌타인이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후원하는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 상금 5억원, 우승 상금 1억원)'이 지난 5월 1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발렌타인은 경기장 안팎에서 발렌타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벤트를 마련하여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 허윤경을 비롯해 '2014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현, 지난해 공동 다승왕의 영광을 누린 김세영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여성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가하여 많은 골프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결승 라운드는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김세영이 허윤경에게 역전승을 따내며 마무리됐다. 지난 2라운드까지 허윤경에게 1타 차로 뒤처져 있던 김세영은 3라운드의 8번홀과 10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하고, 허윤경이 14번홀에서 보기로 주춤한 사이에 파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18번홀에서도 나란히 파를 기록하며 동타를 유지한 두 선수는 경기를 연장전으로 이어갔다. 결국 연장전에서 허윤경은 보기를 범했고 김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 퍼트를 성공시켜 '역전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은 역전승을 거두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필드 안팎에서 전해진 발렌타인의 STAY TRUE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참가자들은 필드는 물론 클럽하우스 곳곳에서 발렌타인의 매력을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발렌타인 17을 상징하는 17번홀은 '발렌타인홀'로 특별히 꾸며져 선수들과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17번홀에 설치된 아치 형태의 조형물과 발렌타인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묻어나는 브랜드 보드는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결승 라운드가 펼쳐진 마지막 날에는 17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7을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힘을 더했다. 클럽하우스 근처 야외 공간에는 발렌타인 브랜드 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올해 새롭게 출시된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곳에서 전시 판매되기도 했다. 또 매일 오후 3시부터 발렌타인 부스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발렌타인 17 후레쉬' 칵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햇빛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 속에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찾는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으며, 수백여 명의 갤러리들이 발렌타인 부스를 찾아 상쾌함을 선사하는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음미했다. 한편 발렌타인은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발렌타인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며, 발렌타인이 오랫동안 지켜온 진정성에 대해 전파했다.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대회에 참가한 몇몇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



01. 발렌타인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발렌타인 17 칵테일'
02. 결승전 당일 17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7이 제공됐다

골프 클럽에서 즐길 수 있었던 '발렌타인 17 칵테일'의 매력

평소 발렌타인은 다른 위스키에 비해 향이 좋다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오늘 시음한 것처럼 발렌타인 위스키를 칵테일로 마시니까 여자들이 즐기기에 더 부드러워서 좋네요. _ 권혜진

저는 특별한 날 주로 발렌타인을 접했어요. 그래서인지 발렌타인을 보면 특별했던 그날의 기억이 나서 좋아요. 맛과 향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추억까지 상기시켜 주니 금상첨화입니다. _ 재준협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마신 술이 바로 발렌타인이었어요. 처음 마셨을 때 느꼈던 달콤한 향과 맛 덕분에 발렌타인은 지금까지도 즐기는 위스키입니다. 오랫동안 즐겨 왔지만 질리지 않고 항상 찾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접했는데 맛과 향이 역시 좋으면서도 색다르네요. _ 하현주



Mini Interview

Ballantine's Special Interview with Star Players Vol.1 KLPGA women golfers

KLPGA 대표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STAY TRUE'

국내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KLPGA 여성 골퍼들을 만났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진정한 가치(STAY TRUE)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김세영은 목표, 안신애는 믿음, 이승현은 자신감을 꼽았다.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은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의 일환으로, 매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진정성을 추구하고(STAY TRUE)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LEAVE AN IMPRESSION) 프로 골퍼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연재해 나갈 예정이다. 그들의 골퍼 인생과 스스로에 대한 진정성을 화두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지면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세영의 STAY TRUE

목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마다 우선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죠. 방향대로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의 첫 목표는 첫 승이었는데 오늘 이뤘어요. 다음의 목표는 최단 시간에 2연승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투어에서 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회에서도 제 젊음을 모두 쏟는 것입니다.



김세영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우승 소감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좋으면서 떨리기도 했어요. '해냈구나'하는 성취감도 들었고요. 첫날 8언더파를 치며 선두권에 들자 그 뒤로 우승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마음을 다스리느라 체력적으로 더욱 힘들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능성은 열어두되 최대한 우승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를 따라서 골프장에 자주 들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다른 운동을 접할 때도 관심은 생겼는데 골프 말고는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골프는 시작하고 나니 그만 두지 못하겠더라고요.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하게 됐죠.



>>
01, 02. 우승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

가능성 있는 선수, 언제든지 잘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 주시는 편이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 크다, 자신감이 넘친다고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도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상상하며 정신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프로 골퍼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선수로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항상 심리적으로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둬요. 또 조금은 실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하죠. 골프는 지구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적인 운동인데 반해 저는 활동적인 성격이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얻으며 심리적인 훈련을 하여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

저 선수 정말 강렬하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승부에 있어서도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역전승으로 우승하다 보니 주변에서 제 경기를 즐겁고 인상 깊게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 좋아요.



이승현

이승현의 STAY TRUE

자신감이 없다면 스스로 주눅이 들 수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자신감은 한 번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또한 골프 경기를 할 때 나오는 자신감은 열심히 연습했을 때 실력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에 연습으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초등학교 5학년 때 방과후 수업으로 골프를 선택하여 친구들과 함께 실내 골프 연습장에 처음 갔어요. 그곳에서 골프를 배우다 보니 저를 가르쳐 주시던 코치님께서 저의 재능을 부모님께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터 아빠와 함께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우연한 기회에 대회까지 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죠.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제가 골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너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매너도 잘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죠. 노력하다 보니 주변 분들도 매너 좋고 침착한 선수라고 인식하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어떤 경기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점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미 스코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는지_

제가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도 골프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
01. 대화를 나누며 그린으로 이동 중인 안신애 선수

안신애의 STAY TRUE

골프를 치는 순간,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간혹 샷을 할 때 푸시를 내면 어찌지 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골프는 물론 인생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이예요.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아버지께서 워낙 골프 마니아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처음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덕분이었죠. 스스로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연습하다 보니 소질이 있었고,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특별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골프는 끈기와 믿음이 필요한 운동으로 인생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저를 외형이 화려한 선수, 예쁘게만 플레이하는 선수로 기억해주시는 것 같아요. 골프 실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 경기에서 향상된 실력을 보여드리면 차츰 인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연습도 소홀히 하고 빼먹고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습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지만 훗날 성적이 오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도 제 진정한 모습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는지_

외모에 성적까지 겸비해서 남다른, 특별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안신애



01

KPGA Golf Tour with Ballantine's

골퍼들의 STAY TRUE, 그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

KPGA 2014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1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2014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지난 5월 22일 88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발렌타인은 이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 선수들과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브랜드 부스를 마련하면서 대회의 열기를 한층 더했다.



02



뜨거웠던 대회 열기만큼 깊고 강렬했던 발렌타인의 여운

발렌타인은 대회 기간 내내 경기장과 클럽하우스, VIP 라운지 등 여러 곳에 발렌타인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했다. 우선 '발렌타인 17'을 연상케 하는 17번홀을 '발렌타인홀'로 지정하여 발렌타인 무드를 흥분시킬 수 있도록 꾸몄으며, 이 외에도 티샷 지점, 페어웨이 외곽 지역 등에 발렌타인 광고 보드를 설치해 선수들과 갤러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갤러리들의 이동이 잦은 클럽하우스 인근에서는 '발렌타인 부스'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발렌타인 부스에는 발렌타인 17,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전시되었으며, 부스 앞 스탠딩 바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17 후레쉬' 칵테일이 인기리에 판매됐다. 매일 오후 3시에는 부스를 찾은 갤러리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제공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18번홀에 위치한 VIP 라운지 내에도 발렌타인 바가 자리잡아, 라운지를 찾은 VIP 갤러리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상쾌한 매력의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시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대회를 즐기는 것 이상으로 발렌타인의 색다른 매력을 마주할 수 있었던 4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발렌타인의 깊고 강렬한 여운이 필드 안팎을 더욱 향기롭게 물들였다. ●

예측 불허의 일대일 정면 승부

총 상금 8억 원, 우승 상금 2억 원의 '2014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올해로 5회째 개최되면서 4일간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특히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과 달리 각 홀마다 승부를 가리는 매치플레이 방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를 연출했다. 이번 대회에는 미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상문, 지난해 JGTO 상금 랭킹 2위에 오른 김형성, 디펜딩 챔피언 김도훈 등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치렀다.

64강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면서 배상문, 김형성 등 우승을 예상했던 주요 선수들이 아쉽게 탈락하는 등 예상을 뒤엎는 이변이 속출했다. 우승자를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막상막하의 대결이 이어졌고, 결승전이 열린 마지막 날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더욱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됐다. 원치 않았던 접전을 펼치던 이기상이 마침내 최준우를 2타 차로 따돌리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4년 6개월 만에 값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그는 올해 11월 결혼할 예비 신부에게 깜짝 프로포즈까지 선물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

- 01. 발렌타인홀로 꾸며진 17번홀에서의 티샷 장면
- 02. 18번홀 VIP 라운지에 마련된 발렌타인 바
- 03. 04. 많은 갤러리들이 발렌타인 부스를 찾아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즐겼다
- 05. 우승을 차지한 이기상 선수가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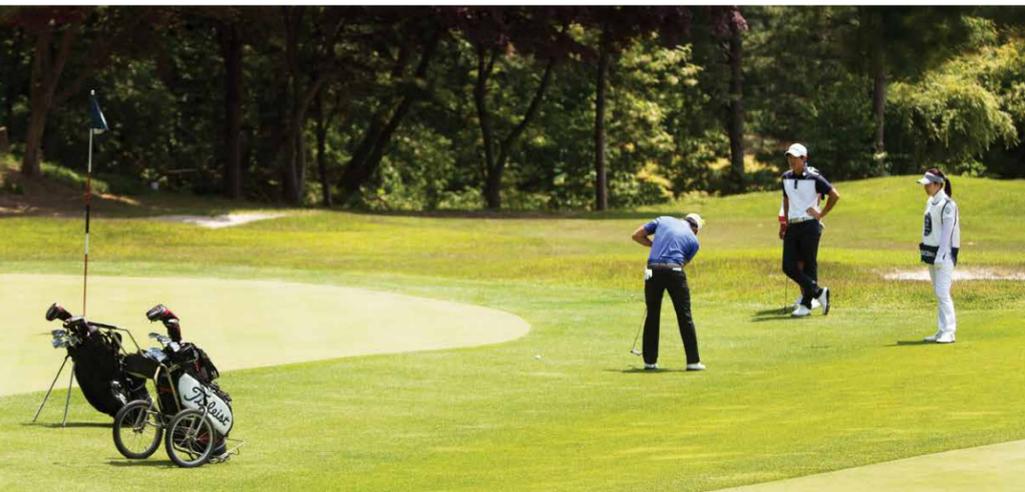
Ballantine's Special Interview with Star Players Vol.2 KPGA men golfers

필드 위에서 더욱 돋보이는 STAY TRUE,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의 주역들을 만나다

2014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시작된 첫날, 호쾌한 샷으로 필드를 화려하게 수놓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만났다. 그동안 뛰어난 활약으로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각 부문에서 수상한 그들에게, 지금의 자리까지 자신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가치(STAY TRUE)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은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의 일환으로, 매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진정성을 추구하고(STAY TRUE)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LEAVE AN IMPRESSION) 프로 골퍼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연재해 나갈 예정이다. 그들의 골프 인생과 스스로에 대한 진정성을 화두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지면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배상문의 STAY TRUE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외부로 표출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스스로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자신감을 앞세워, 주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신감을 무기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어머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야구를 좋아해 선수를 꿈꿨으나, 어머니께서 골퍼가 저에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정확히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아켜 봤을 때 본인은 골퍼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기사를 보면 '메이저 사냥꾼', '괘남아'란 별명을 붙여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큰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의 다양한 성격 중 화려한 부분을 특히 부각해 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까지는 젊고 혈기왕성한 때이니 그런 모습과 인상에 대해 동의하며, 앞으로의 30대부터는 좀 더 새로운 인상을 남기고 싶네요.

프로 골퍼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골퍼를 대할 때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릴 적 넉넉지 못한 성격으로 굉장히 어렵게 운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험그리 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도 그 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퍼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경주 프로님의 모습을 보면, 미PGA 투어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성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러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반짝 화려한 선수가 아닌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을 인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배상문

2013년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해외특별상

김형태의 STAY TRUE

투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오직 골프 경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적인 부분을 모두 챙겨 주는 가족의 힘이 컸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지켜 준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형태
2013년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LEAVE AN IMPRESSION상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골프장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못했어요. 그 뒤 마음 먹은 대로 샷이 잘 안되니까 오기로 더욱 골프에 매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늘 가족과 함께하는 골퍼의 모습으로 각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어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매 경기마다 함께했는데, 당시로서는 가족을 대동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 주위의 시선이 좋지않은 않았습니. 가끔 농담 섞인 어조로 '직장에 가족을 데리고 오냐'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후배 골퍼들이 점차 경기장으로 가족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 되었지만요.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체력, 집중력, 정신력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제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에서 LEAVE AN IMPRESSION상을 수상했는데_

재작년 일본에서 투어 카트를 잃으면서 한국에 어렵게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지난해 거둔 KPGA선수권 우승은 제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LEAVE AN IMPRESSION상이 뜻하는 의미처럼, 개인적으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14년의 프로 투어 생활 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13년 후의 시니어 투어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임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젊은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경쟁력과 노련함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한의 STAY TRUE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초심을 잃고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늘 초심을 지켜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공군 조종사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일곱 살 때부터 부대 안의 골프 연습장에 자주 놀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했어요. 당시 어둠이 내려 앉은 골프장에서 공이 '탕탕'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것에 매력을 느꼈죠.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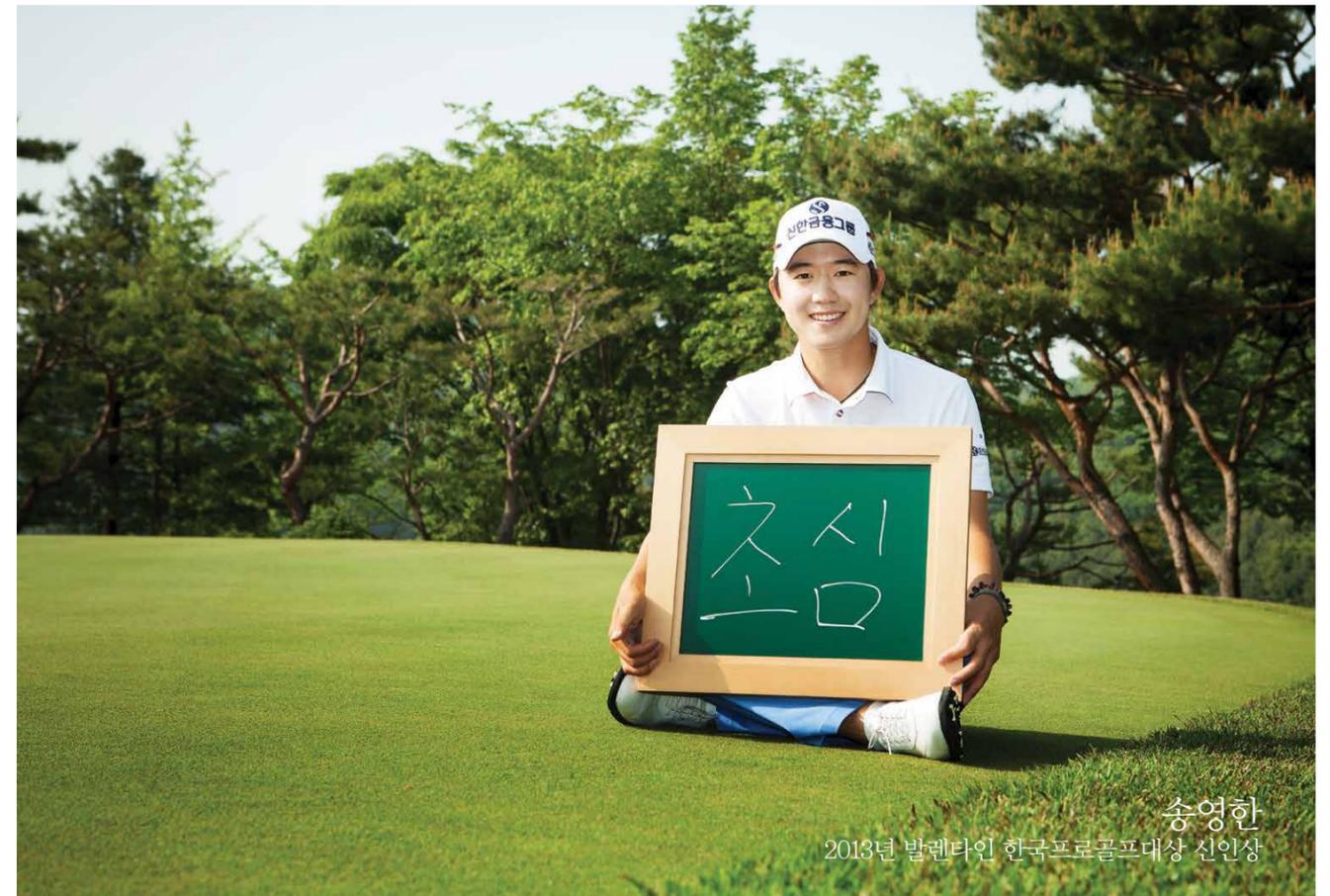
아직은 워낙 신인이라 많은 분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진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열심히 플레이하면서 성적도, 매너도 좋은 선수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늘 관심이 가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에서 신인상(명출상)을 수상했는데_

사실 시즌 초에는 신인상에 대한 큰 욕심이 없었는데, 막상 신인상을 받고 나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었기에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주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최경주 프로님께서 늘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여러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처럼, 저 역시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한 해 한 해 실력을 쌓아가며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짐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귀감을 사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송영한
2013년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신인상

홍순상
2011년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발렌타인대상



홍순상의 STAY TRUE

꿈이 없다면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골프를 시작하면서부터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프로가 되고 나서는 우승을 하는 것,
우승을 한 뒤에는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어려서부터 전직 골프 기자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프로 선수로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골프 관련 채널을 주로 접하다 보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골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지금까지 우승을 몇 번 해왔지만, 타이거 우즈와 같이 우승을 하더라도 마지막 홀에서의 역전처럼 드라마틱한 모습을 늘 그려왔습니다.

프로 골퍼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흔히 골프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듯,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골프 경기에 임할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개인적으로는 시니어 투어까지도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한 한 오래도록 선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실력로나 인성적으로나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주위를 보면 골프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선수들에게 골프를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힘이 되는 멘토 같은 존재로 남았으면 합니다.

최호성의 STAY TRUE

드넓은 필드 위에서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더불어 힘을 주는 가족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제 골프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시작이 늦었습니다. 골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25살부터였고, 골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우연히 골프 클럽을 잡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욱 연습에 매진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겨왔는지_

저를 표현해 주시는 수식어들은 '외골수', '잡초' 등 대부분 강인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마도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노력해 왔던 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인상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닐까 해요.

지난해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에서 베스트샷상을 수상했는데_

2013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2라운드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해 '베스트샷상'까지 수여받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은 못했습니다. 당시 235야드의 거리를 향해 날린 세컨 샷이 행운의 알바트로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걸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했는데, 맞는 순간 느낌이 좋더라고요. 56년 역사의 코리안투어 사상 여섯 번째 알바트로스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프로 골퍼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STAY TRUE)'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집념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된 골퍼지만,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록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의 기회를 떠올리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개인적으로 발렌타인 위스키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좋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숙성되고 깊어지는 발렌타인처럼, 저도 깊고 진하게 오래도록 골프를 즐기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호성
2013년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베스트샷상

BALLANTINE'S ROAD TO SCOTTISH OPEN TOURNAMENT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를 향한 티샷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스코틀랜드를 고향으로 하는 발렌타인 위스키와 골프, 그 둘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여행에 도전하라.

아름다운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예술적인 위스키 블렌딩, 꿈에 그리던 EPGA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관람까지,

완벽한 자유를 느낄 기회가 당신의 손에 달렸다.

수 세기 동안 수많은 골프의 명장들을 탄생시킨 전설의 토너먼트, 'EPGA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이하 '스코티시 오픈')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올해로 이미 8년째 스코티시 오픈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발렌타인은 골프와 발렌타인 위스키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대회를 마련했다.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이자 스코티시 오픈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행운으로 이어질 교두보 역할을 할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가 바로 그것이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타인, 그리고 골프.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유산을 탄생시킨 스코틀랜드라는 공통 분모를 인연으로, 발렌타인은 2007년부터 스코티시 오픈을 공식 후원해 왔다. 선수들에게는 물론 골프 팬들에게도 스코티시 오픈은 전설적인 승부와 스타 플레이어를 꾸준히 배출해 온, 주목할 만한 대회인 것. 즉,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는 이 환상적인 승부의 결정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줄 행운의 열쇠인 셈이다.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는 6월 23일 렉스필드 골프 C.C.에서 진행된다. 발렌타인은 자연 경관이 빼어나면서도 도전적인 홀이 많은 코스를 선택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숨어 있는 홀을 배치하여 라운딩의 재미가 배가되도록 했다. 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행운의 100명은 발렌타인이 준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통해 선발된다. 6월 14일까지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발렌타인 17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단 참가자로 뽑히게 되면 다양한 특전이 기다린다. 대회 당일 중식과 디너가 각

각 제공되고, 발렌타인을 활용해 만든 색다른 칵테일도 테이스팅해 볼 수 있다. 특별한 추억을 기념할 개별 기프트도 증정될 예정이며, 현장 이벤트를 통한 경품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쉽게도 행운의 100명에 선정되지 못한 참여자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다. 대회 종료 후 발렌타인은 프로모션 응모자 중 별도로 추첨된 777명에게 발렌타인 메모 패드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영예의 수상자 2인은 발렌타인과 함께 골프와 위스키의 메카, 스코틀랜드로 떠나는 스코티시 오픈 투어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생일대의 경험이 될 5박 6일간의 투어를 통해 이 두 명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골프와 발렌타인 위스키를 만나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둘을 경험하고 마음에 남기게 될 것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블렌딩의 미학이 살아 숨쉬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탄생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발렌타인 증류소 탐방과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골프를 사랑하는 선수와 갤러리 모두에게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줄 스코티시 오픈 결승전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골프장으로 알려진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골프 라운딩 또한 준비되어 있다. 발렌타인은 항공권을 비롯하여 이 모든 투어 일정에 포함된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전 세계의 톱 랭커 선수들이 명승부의 향연을 펼치는 스코티시 오픈의 생생한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기회가 될 스코티시 오픈 투어. 그 아름다운 꿈의 여정을 향한 불꽃 튀는 경쟁이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의 티샷에서 시작된다. 🏌️

“
골프와 발렌타인의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펼쳐지는
전설적인 승부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Aberdeen | SCOTTISH OPEN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이하 '스코티시 오픈')이 열리는 스코틀랜드는 골프가 처음 시작된 곳이자, 발렌타인 위스키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스코틀랜드라는 태생적 공통점을 공유한 골프와 발렌타인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으며, 발렌타인은 2007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스코티시 오픈을 공식 후원해 오고 있다.

1972년 처음 시작된 스코티시 오픈은 세계 톱 랭커들의 메이저 대회이자 골퍼들의 또 하나의 축제이다. 2013 스코티시 오픈에는 어니 엘스, 대런 클라크,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베른트 비스베르거, 마커스 프라이저 등 해외 스타플레이어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회를 빛냈으며, 연장전 승부 끝에 필 미켈슨이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4 스코티시 오픈에는 어떤 선수들이 참여하여 쟁쟁한 승부를 겨룰지 기대된다.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다면, 발렌타인 17년을 구매하고 프로모션에 참여해 보자. 발렌타인은 프로모션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2014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이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스코틀랜드에서 골프와 위스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ROAD TO SCOTTISH OPEN TOURNAMENT 2014

발렌타인이 후원하는 2014 EPGA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결승전에 참관하고 골프의 성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꿈의 라운딩을 펼쳐세요!



발렌타인이 주최하는 아마추어 골프대회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EPGA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관람의 기회를 잡으세요!

일시 및 장소
2014년 6월 23일 | 렉스필드 골프 C.C.

응모 기간
2014년 5월 1일 - 2014년 6월 14일

응모 방법
「발렌타인 17」 구매 후 인증번호 확인
· 문자 메시지 #1721로 인증번호 전송
OR
· 아래 QR 코드로 모바일 사이트 접속 후 인증번호 입력
[주요 바 및 백화점, 할인마트에서 구매 가능]

당첨자 발표
6월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100명)
www.ballantinesmc.com



※ 100명의 토너먼트에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 분께는 별도 추첨을 통하여 발렌타인 메모패드 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777명에 한함)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우승자 혜택
영예의 주인공 2인이 함께하는 스코티시 오픈 투어

- 발렌타인 증류소 탐방 및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
- 스코티시 오픈 결승전 갤러리 참관
- 세계 최초 골프장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골프 라운딩

DRINK RESPONSIBLY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Column by Ballantine's Influencer

2014 미국 올랜도 골프쇼를 참관하고

PGA 골프쇼에서 2014년 골프 트렌드를 만났다.

최첨단 융복합기술과 골프의 만남, 클럽 피팅 그리고 비거리 향상을 위한 심화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MFS 골프 대표이사 / 체육학 박사
전재홍 (jjh@mfgolf.com)



미국 PGA 주관으로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서 매년 1월 말 경에 열리는 PGA Merchandise Show(올랜도 골프용품 박람회)는 골프 클럽, 골프 의류, 골프장 관련 장비 및 골프와 연관된 모든 산업 분야를 총망라한 골프 관련 시장의 메카라 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골프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한 해의 클럽 시장 경향을 판단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가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며, 각종 세미나도 열리는 골프 산업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골프쇼 하면 한국에서 열리는 몇몇의 골프쇼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국내 골프쇼는 소비자를 위주로 한 아울렛 매장의 성격이 짙고, 아시아 Merchandise 소로는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동경 골프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참가 업체는 180여 개 정도다. 반면 참가 업체만 무려 1,100여 군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골프 관계자와 바이어들로 진행되는 미국 PGA 골프쇼는 규모면으로나 질적인 수준에서 여타 골프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스포츠쇼 중 대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올해 2014년 골프쇼의 트렌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최첨단 장비를 응용한 레슨 장비 및 측정 장비 그리고 스노 보드를 연계 하는 보드를 타고 필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융복합기술과 골프와의 만남이다. 두 번째로 더 이상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보다 즐겁고 쉽게 치자는 편(fun)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즉, 더 많은 골퍼들의 유입을 위해 프로들에게는 기존의 룰을 적용하되 아마추어들에게는 골프 룰에 저촉되지 않고 보다 볼이 정확하고 멀리 나가게 하는 클럽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홀컵 역시 크게 하는 식으로 개방하자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대다수의 메이저 회사들이 기성 클럽에 피팅(Fitting)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클럽 헤드에 피팅 기능을 적용시킨 것은 2000년대 초 테일러메이드사의 500시리즈 클럽이 나오면서부터 발전되어 온 부분인데, 이를 보다 쉽게 활용하여 탄도, 방향성 및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덧붙여 테일러메이드사는 최적의 비거리를 내기 위한 4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쇼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피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4~5년 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론으로, 단순히 골퍼들의 주장이 아닌 공학도들의 여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다 세밀한 연구 테스트를 해볼 만한 흥미로운 과제다.

비거리를 높일 수 있는 4대 키 중 첫 번째는 헤드 스피드(head speed)다. 헤드 스피드를 원천적인 에너지로 본다면, 볼 스피드(ball speed)는 그 두 번째로, 실질적인 비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세 번째는 초기 발사각 (launch angle)으로, 이는 볼의 초기 발사 각도를 의미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백 스피너(back spin)로 볼의 비행 시 스피너의 양을 의미한다. 이때,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각각 볼의 체력과 피트니스, 그리고 레슨을 통한 안정된 스윙으로 얻을 수 있는 요소라면, 클럽의 초기 발사각과 백 스피너량의 최적화를 통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최적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원천적 힘이 좋아야 하고, 힘보다는 효율성을 높여 볼 스피드를 증가시켜야 하며, 클럽에서는 고탄도의 저스핀이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비거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적의 고탄도에 저스핀의 값으로는 초기 발사각 17도에 백 스피너량 2,700rpm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

Column for Golfers

페르노리카 그룹의 대한민국 골프 사랑은 쭉쭉~ 계속된다!

지난 1960년 영국의 명문 클럽 웨스트워스에서 발렌타인 토너먼트를 후원하기 시작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발렌타인과 골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페르노리카 그룹은 올해도 어김없이 팬들을 찾아 역동적인 움직임을 계속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업국장
박호윤(phy2006@kpgt.com)

올 시즌 국내 남자프로골프 코리아투어가 지난 4월 16일부터 나흘간 강원도의 웰리힐리골프장에서 열린 동부화재프로미오픈(총상금 4억원)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간 다소 침체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던 코리아투어는 올 시즌 지난해보다 2개가 늘어난 총 16개 대회가 준비되어 있어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 대회인 'KPGA선수권대회'가 상금 10억원으로 2배나 증액돼 메이저 타이틀다운 면모를 갖췄고 국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인 '대상트코리아 매치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도 상금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최종전은 역시 10억원의 상금이 걸린 신한동해오픈으로 11월 첫 주에 예정돼 있다.

지난 6년간 국내에서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치며 국내 골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 받았던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지만, 지난 여섯 차례의 대회 개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는 게 국내 골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비록 대회는 열리지 않지만 페르노리카 코리아 측은 국내 팬들이 발렌타인의 지극한 골프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특별 이벤트를 시즌 내내 펼칠 예정이라 한껏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우선 페르노리카는 오랜 동반자 관계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및 각 대회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타이틀 스폰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코리아투어 각 토너먼트의 VIP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암에 발렌타인을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위스키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골퍼들을 찾은 갤러리들에게도 경품 제공과 시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대회의 규모에 따라 스카이 박스 등 VIP 전용 라운지 운영이 가능할 경우 품격 높은 공간을 마련, 특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렌타인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공간이 허용할 경우 갤러리 광장에도 퍼블릭 바를 운영함으로써 일반 골퍼 팬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수들 대상으로는 매 대회 17번홀을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로 지정, 발렌타인과 메인 스폰서 브랜드로 디스플레이한 뒤 버디를 기록하는 선수에게 발렌타인 17년을 선물로 증정한다. 만일 17번홀이 파3홀로 조성되어 있을 경우, 홀인원 최초 기록자에게는 세계 최고급의 발렌타인 40년 산을 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기도 하다.

한편 페르노리카 측은 오는 6월 중 렉스필드 C.C.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 골프와 위스키의 성지인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2014 EPGA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에 참관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다양하고도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올해도 골프와 위스키에 대한 국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골프의 재도약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KPGA가 코리아투어 기간 중 실시하는 '해피투게더 캠페인' 즉, 우승자와 함께하는 해피 라운딩, 프로암 감사의 카드 작성, 각종 팬 사인회 등과 함께 어우러져, 코리아투어 매 대회마다 선수와 갤러리,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후에도 난 이익이 아닌
열정을 위해 작품을 만들 것이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03

Innovation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같은 고향을 그리는 두 사람이 만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듯,
스코틀랜드를 고향으로 둔 발렌타인과 골프의 만남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다.
어쩌면 이미 서로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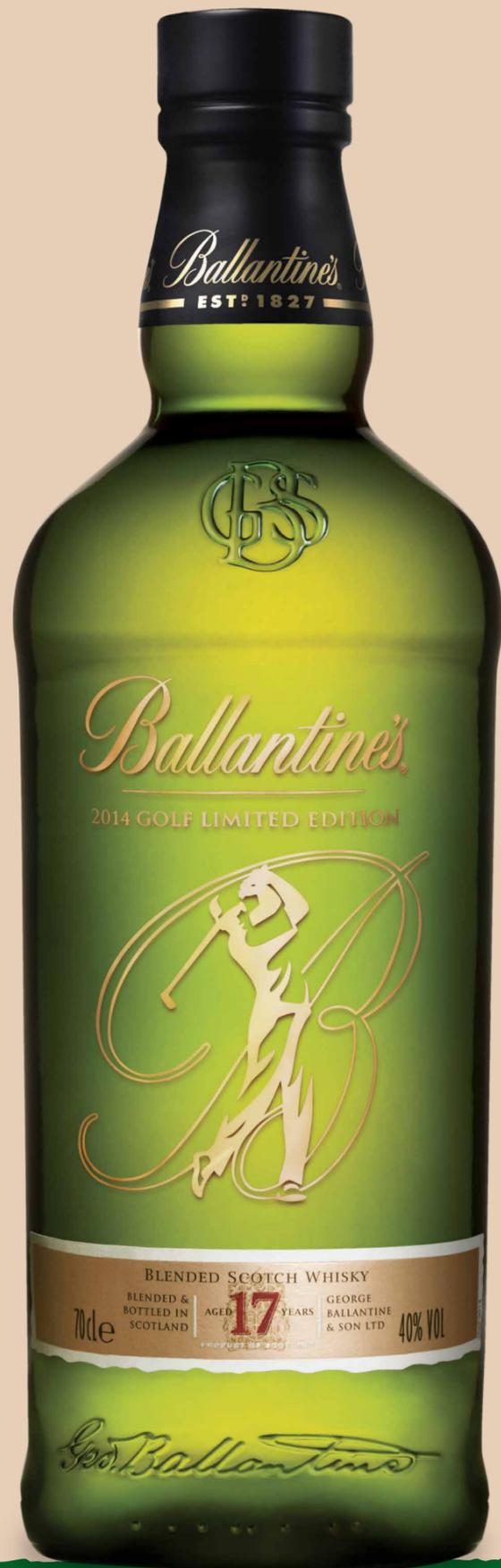
01. 02. 필드 위에서 더욱 돋보이는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2014 Ballantine's Golf Limited Edition 발렌타인과 골프, 그 의미 있는 만남을 이어 가다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된 발렌타인과 골프. 이 둘의 특별한 인연은 발렌타인의 다양한 캠페인과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통해 곳곳에서 가치 있게 빛나고 있다. 올해도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발렌타인이 지속적으로 선사하는 골프 스토리의 한 장을 이었다.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발렌타인과 골프의 각별한 관계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명문 골프 클럽 웬트워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한 것이 그 시작으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렌타인은 전 세계적인 골프 대회를 개최,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매년 출시되고 있는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발렌타인과 골프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결정체로 많은 이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발렌타인은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아 골프 팬들을 설레게 할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각각 발렌타인 17과 발렌타인 21을 각각 베이스로, 보틀에서부터 패키지까지 새롭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한눈에도 골프의 무드를 매력적으로 풍기는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오묘한 컬러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위스키 애호가들과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역동적인 골퍼의 이미지와 발렌타인의 'B' 로고가 조화를 이루는 이번 에디션의 메인 비주얼은 발렌타인과 골프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보틀에 골드 컬러로 프린트된 심볼이 프리미엄을 한층 더한다. 단순히 발렌타인을 즐기고 싶을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싶은 마음마저 불러일으키는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국의 주요 골프 클럽 및 주류 전문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힐드로사이 CC 등 일부 골프 클럽에서도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전시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



BALLANTINE'S & GOLF,
THE EXPRESSION OF TRUE SCOTTISH SPIRIT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40

두 거장의 손끝에서 실현된
200여 년간의 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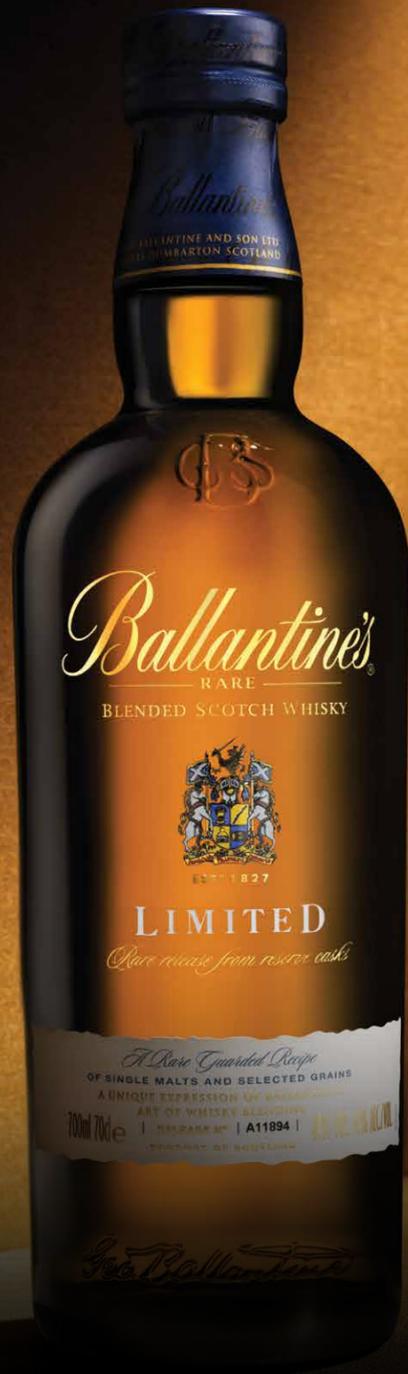
발렌타인 40년은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처드 폭스가 합작하여 탄생한 이 명작은 매년 단 100병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계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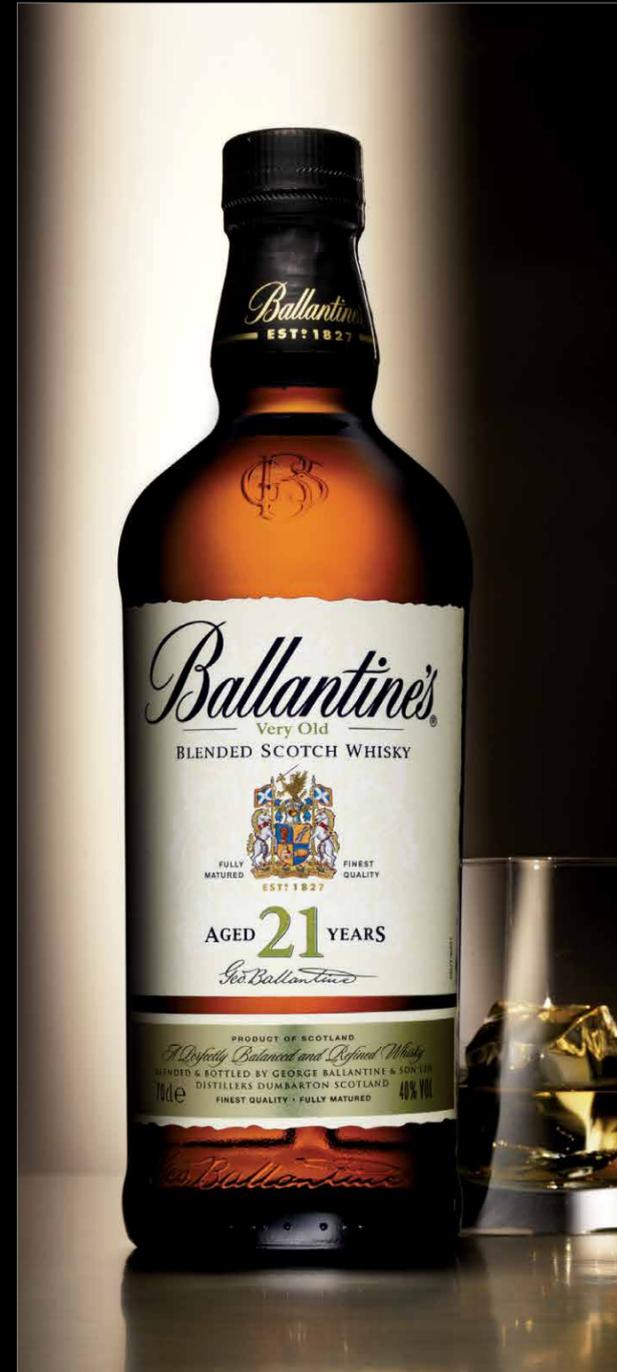
발렌타인 30년은 슈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중 단연 최고 제품이다. 수작업으로 직접 고른 몰트와 그레이н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한정된 수량으로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가 탄생한다.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가장 진귀한 원액과 3대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프레임에 가죽 느낌의 커버가 품격을 높인다.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발렌타인 21년은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반짝이는 황금색, 향기로운 꽃향기, 아로마틱한 풍미 등 오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급 위스키의 전형으로 칭송 받는 발렌타인 21년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다.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하는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 브랜드

발렌타인 17년은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이다.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Ballantine's 17
Glenburgie 200th Anniversary Edition

1st. edition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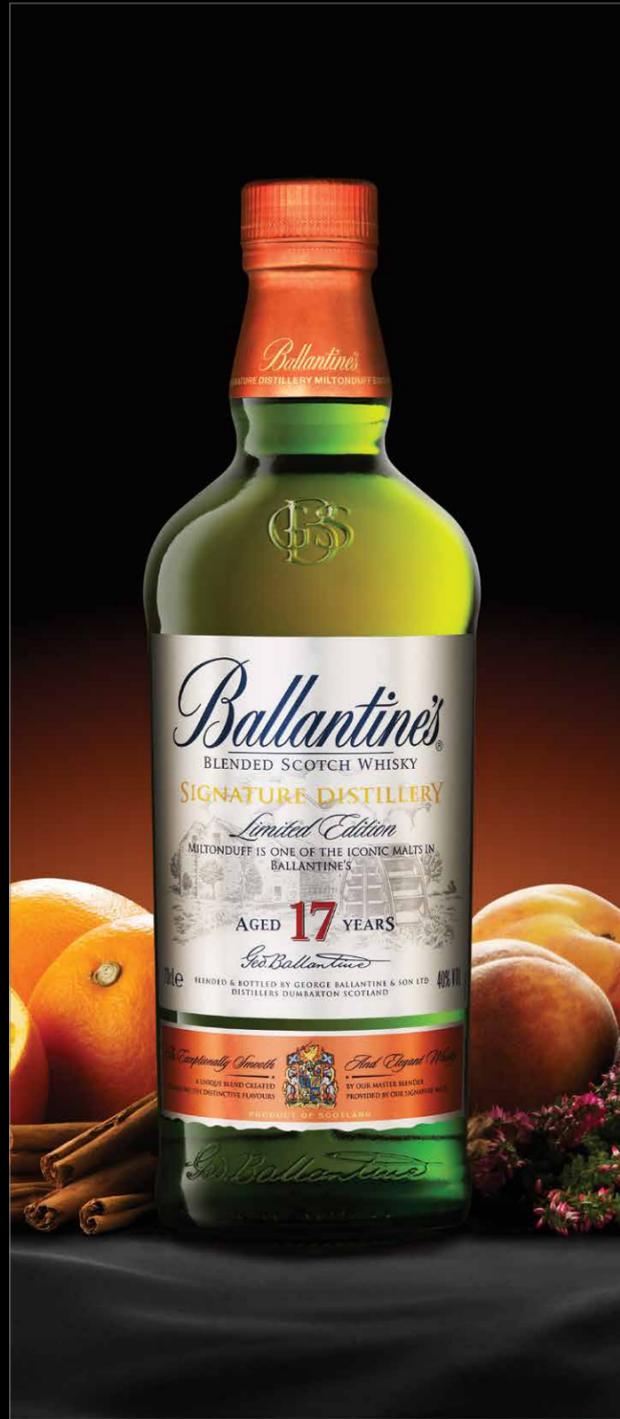
발렌타인 17년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첫 번째 버전,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오렌지 맛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오랜 여운을 남긴다.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2nd. edition 발렌타인 17 스카파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 위치한 스카파의 풍부한 풍미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 이국적이고 미스터리어스하며 드넓은 스카파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발렌타인의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간이 되는 스카파 몰트가 강조되어 풍부한 과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Ballantine's 17 Miltonduff Edition

3rd. edition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발렌타인 17년의 우아한 부드러움의 근간을 이루는 밀튼더프 몰트가 맛과 향에 크림이하고 따스한 느낌을 부여한다. 향긋한 꽃 내음,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 배즙의 풍부한 과일 향에 계피의 스파이시한 풍미가 밀튼더프 고유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Ballantine's 17 Glentauchers Edition

4th. edition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피니시를 담당하고 있는 글렌토커스 몰트가 강조되어 은은한 시트러스의 풍미를 가지며, 여성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라즈베리와 견과류 향, 따뜻함을 담은 긴 여운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17년 후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일을 디자인할 것이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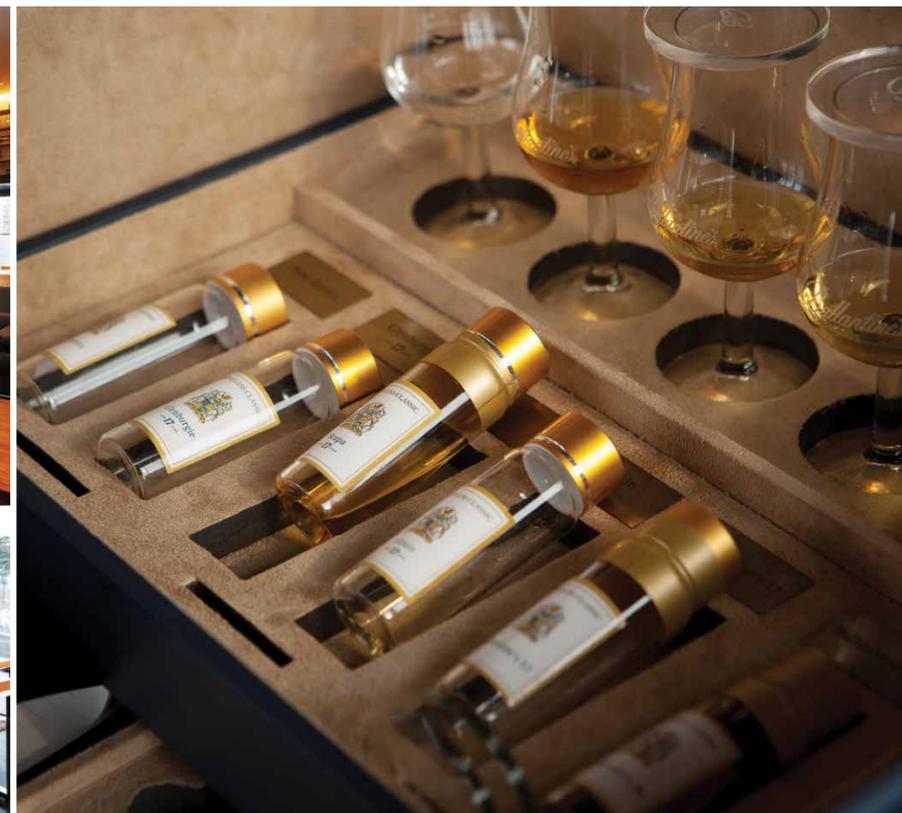


04

Art of Blending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은 위스키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오감을 터치하는 새로운 자극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스토리다.



Ballantine's Mentoring Class
@THE ANANTI Club, Seoul

골퍼들을 위한 위스키 테이스팅의 시간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발렌타인 스노골프가 진행되는 기간 중 현장을 찾은 골퍼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클래스가 열렸다. 많은 참가자들이 라운딩을 앞둔 잠깐의 준비 시간 혹은 경기를 마친 후의 휴식 시간 틈틈이 발렌타인 룸을 찾았고,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발렌타인 위스키와 함께하는 잠깐의 여유

발렌타인 스노골프 시즌을 맞아 아난티 클럽 서울의 클럽하우스 타워 3층이 오직 멘토링 클래스를 위한 '발렌타인 룸'으로 꾸며졌다. 발렌타인만의 무드를 자아내는 내부 공간은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오직 테이스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었다. 또 클래식하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발렌타인의 헤리티지, 골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소품이 더해져 시선을 끌었다.

멘토링 클래스는 참가자들의 라운딩 스케줄을 고려해 일반적인 멘토링 클래스와 미니 멘토링 클래스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마련됐다. 미니 멘토링 클래스는 좀 더 많은 참가자들이 발렌타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라운딩 시간 전후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10분 정도의 다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완벽한 조화로우며 선사하는 '발렌타인 17', 부드럽고 긴 여운의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를 차례로 테이스팅하며 각각의 블렌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엔 충분했다. 특히 지난해 겨울 새롭게 출시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는 라즈베리 향의 풍미로 현장의 여성 골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미니 멘토링 클래스가 스노골프 라운딩을 앞둔 골퍼들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면, 그라운드 안팎에서 즐길 수 있었던 발렌타인 윈터 칵테일은 라운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클럽하우스, 그늘집,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렌타인만의 칵테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골퍼들이 잠깐의 여유 시간에 테이스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칵테일을 맛본 후 상세 레시피에 대해 묻는 등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17 칵테일에 모두가 흡족해했다.

새롭게 알아가는 발렌타인의 브랜드 히스토리

미니 멘토링 클래스를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진 골퍼들은 'Timeless Classic'을 주제로 한층 심화된 멘토링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웅장한 배경 음악이 깔리고 발렌타인의 '블렌딩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이 스크린으로 상영되면서 본격적인 멘토링 클래스가 시작됐다.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의 친절한 설명 아래 몇몇의 참가자들은 처음 경험하는 위스키 클래스에 살짝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 속에 담긴 발렌타인의 히스토리와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상세 소개가 이어지면서 모두가 기대하던 테이스팅의 시간이 다가왔다. 참가자들은 자리마다 세팅된 테이스팅 키트 속 뉴스피릿, 그레인 위스키, 발렌타인 17,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발렌타인 17 스카파, 발렌타인 30을 순서대로 음미하며, 본인이 느낀 맛과 향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원액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했고, 이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특히 발렌타인 17을 테이스팅한 후에는 위스키의 맛과 향을 척도로 표현하기 위한 테이스팅 휠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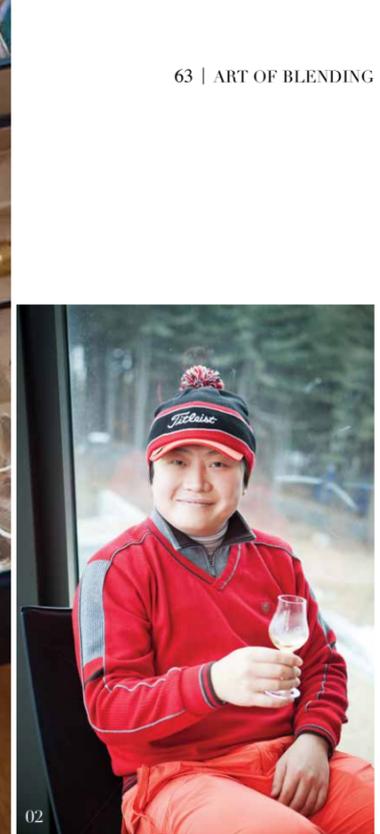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한 최용석 씨는 "스노골프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고,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서도 평소 미처 몰랐던 발렌타인의 숨은 매력까지 알 수 있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발렌타인 스노골프 경기를 마치고 발렌타인 룸을 찾은 김도형 씨는 "평소에도 발렌타인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테이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편안함'을 발렌타인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손꼽았다. 🍷



01



04



02



03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각각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발렌타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발렌타인의 브랜드 히스토리와 다양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위스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평소에도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위스키를 종종 즐기는 편인데, 앞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되새겨 가며 더욱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테이스팅한 6가지 위스키 중 부드러운 오크 향이 입가에 계속 맴돌았던 '발렌타인 17 스카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_ 페이스북 코리아 조용범 지사장

>>

- 01. 여성 골퍼들도 다수 참석해 발렌타인의 진면목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 02, 03. 스노골프 경기와 멘토링 클래스 모두에 흠족해한 김도형 씨(위), 최용석 씨(아래)
- 04. 테이스팅 키트에 담긴 6가지 원액을 차례로 테이스팅했다

Ballantine's 17 Cocktail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 산뜻하게 즐기는 발렌타인 17 칵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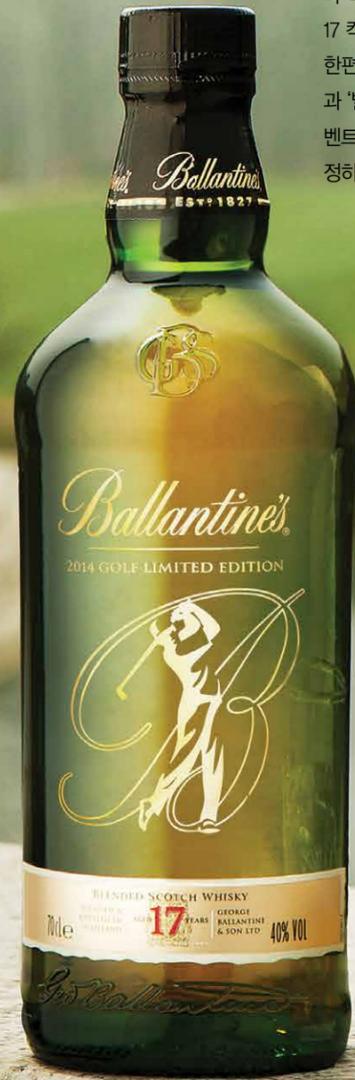
발렌타인은 골프 시즌을 앞두고 산뜻하면서도
청량한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출시했다.
남녀 골퍼들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 특별한 칵테일은 전국 각지의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골프의 계절 봄, 골퍼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칵테일이 등장했다. 최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을 비롯한 전국의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메뉴로 신설한 것. 이 신메뉴를 통해 발렌타인은 골퍼들에게 새로운 위스키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낮은 알코올 도수로 평소 위스키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나 여성들도 가볍게 마실 수 있어, 필드를 찾는 많은 골퍼들로부터 이미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발렌타인 17 칵테일'로 이름 붙여진 3종류의 칵테일은 올해 선보인 '2014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발렌타인 위스키를 보다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17 온더락', 탄산수와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발렌타인 17 하이볼', 시원하고 상쾌한 매력의 '발렌타인 17 후레쉬'가 그것으로, 이 세 가지의 색다른 칵테일 레시피를 통해 발렌타인의 숨겨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라운딩을 위해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을 찾은 김봉석 씨는 "경기 시작 전 발렌타인 17 하이볼 한 잔을 마셨는데, 부드러운 풍미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며 흡족해했다. 또 "개인적으로 발렌타인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발렌타인 17 칵테일로도 자주 즐겨야겠다"고 첫 시음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국 각지의 프리미엄 골프 클럽에서는 '2014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과 '발렌타인 17 칵테일' 런칭을 기념하며 칵테일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혹은 각종 골프 아이템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특히 골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
01. 위스키와 탄산수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발렌타인 17 하이볼'
02. 시원하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17 후레쉬'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며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레스토랑 박상권 지배인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에서도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 라운딩을 끝낸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시원하고 상쾌한 '발렌타인 17 칵테일'은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석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며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즐겨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고 싶네요.

'발렌타인 17 칵테일'에 어울리는 레스토랑 메뉴를 추천한다면, 현재 레스토랑에서 선보이고 있는 메뉴 중 신선한 샐러드나 연어 요리, 스테이크 류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의 특성상 한식, 중식, 일식 메뉴가 많은 편인데, 본격적인 발렌타인 17 칵테일 런칭을 맞아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신메뉴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에 대한 소개를 덧붙인다면, '신이 내린 신성한 대지'를 뜻하는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은 이름 그대로 인공적인 것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 지형을 살린 골프 코스를 자랑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라운딩의 추억도 남기시고, 발렌타인 17 칵테일이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

Ballantine's Pick!

필드 위에 퍼지는 발렌타인의 풍미, '발렌타인 17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전국의 프리미엄 골프 클럽

-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2840
- 천룡 컨트리클럽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 렉스필드 컨트리클럽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풍리 산108
- 스카이72 골프클럽 하늘코스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469-10
-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 인천그랜드 컨트리클럽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
- 오크밸리 컨트리클럽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1길 66
- 오크힐스 컨트리클럽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226번지
- 남춘천 컨트리클럽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226번지

05

Ballantine's
& Women

The Way That Women Love Ballantine's

흰 눈이 쌓인 필드가 안겨 주는 설렘,

발렌타인 위스키가 전하는 따스한 무드와 교묘하게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퍼팅의 반전 매력이 추운 계절의 여심을 사로잡았다.



Exciting Shot on White Field

한겨울의 정적을 깨는 여성 골퍼들의 거침없는 도전

추위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 여성들이 눈 내린 필드로 모였다. 환상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눈 위에서의 티샷,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의 발렌타인 윈터 칵테일들은 섬세한 여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발렌타인 스노골프 시즌이 시작되면서 평소 필드 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 오던 여성들은 이내 겨울철 이색 라운딩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다. 화사한 골프룩을 갖춰 입고 등장한 여성 골퍼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샷을 구사하며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었다. 여성 참가자들은 패셔너블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각자의 개성을 뽐내기도 하고, 설원의 풍경을 사진에 담기도 하며 라운딩하는 내내 지치지 않는 기색을 보여줬다. 또한 서로의 스윙 자세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등 마치 프로와 같은 세심함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지난 1월 8일에는 매거진 <골프포워먼>의 여성 독자들을 다수 초청해 스노골프 라운딩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초대를 받은 참여자들은 평소 골퍼를 좋아한다는 관심사가 같아 서인지 라운딩 중간중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또 처음 접해 보는 스노골프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듯 함께 동행한 캐디에게 궁금한 점들을 연신 질문하기도 했다. 라운딩 전후로는 발렌타인 윈터 칵테일을 음미하거나,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 발렌타인 위스키의 매력을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선보여 온 발렌타인 스노골프는 가족, 연인, 지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색다른 겨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특히 여성들의 높은 참여도와 호응을 이끌었다. 경기 자체가 남녀 구분 없이 진행되지만 그 실력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대등한 결과를 보이면서 여성들에게 묘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킨 것. 이전 제1회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서 아마추어 여성 골퍼 객재원 씨가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현재까지도 크게 회자되고 있다.

올해도 많은 여성 참가자들이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모델 김효진, 영화배우 최은주, 개그우먼 서길자, CF모델 박현심 등 골퍼를 좋아하는 셀러브리티들과 아마추어 여성 골퍼들이 대거 참여하여 이 색다른 스포츠가 전하는 매력을 마음껏 누렸다. 🍷



01. 여성 골퍼들의 컬러풀한 패션은 하얀 필드 위에서 더욱 돋보였다
02. 경기 시작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는 모습



01



04



05



06

- >>
- 01. 힘찬 티샷을 날리는 한 여성 골퍼
 - 02. 시상식 당일 깜짝 이벤트를 통해 '마스터 블렌더상'을 수여 받은 이숙영 씨
 - 03. 센스 있는 포즈로 포토제닉상을 수상한 김은선 씨(우)
 - 04. 많은 여성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경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였다
 - 05, 06. 때때로 남성 골퍼들 못지 않게 화려한 샷을 선보이기도 했다



02



03

Mini Interview

여성 골퍼들이 반했다, 발렌타인 스노골프!

겨울이면 으레 골프를 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통해 오랜만에 필드를 밟게 되어 좋았어요. 4번홀에 특히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볼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 에피소드조차 스노골프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_ 최성중합건설(주) 최종임 대표

눈 쌓인 필드에서 아이언 샷과 동시에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니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건지 않은 눈길에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면서 즐겁고 유쾌한 라운딩을 경험했습니다. _ (주)모크스 조승연 대표

지난해 발렌타인 스노골프 영상을 접하고 무척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네요. 평소 같았다면 쉽게 성공했을 퍼터 샷도 쌓인 눈 때문에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는 라운딩이었어요. _ '니어리스트상 & Lucky 21상' 문희숙

모르는 분들과 대회 조 편성이 되었는데, 오히려 경기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눠가며 친해질 수 있어 좋았어요. 갈때기 홀에서 아쉽게 놓친 샷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통해 색다른 경험도 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발렌타인 위스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_ '마스터 블렌더상' 이숙영

대회 직전 포토월 앞에서 즉흥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포토제닉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설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것처럼, 내년에도 스노골프 챔피언십에 꼭 참가해서 더 즐거운 추억을 쌓아 가고 싶습니다. _ '포토제닉상' 김은선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세계의 문화와 예술, 트렌드에 주목하는 당신을 위해,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보는 시간.

립즈 페스티벌
2014.09.01 - 09.30 / 영국 런던 / totallythames.org

Ballantine's
Pick



LES RENCONTRES ARLES PHOTOGRAPHIE



2014 아를 국제 사진 축제

2014.07.07-09.21 / 프랑스 아를 / www.rencontres-arles.com

국제 사진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로 손꼽히는 아를 국제 사진 축제가 올해로 제44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진 페스티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축제는 1969년 루시앙 클레르그(Lucien Clergue)에 의해 기획됐다.

프랑스의 원로 사진작가 루시앙 클레르그는 10살 때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피카소의 초상을 찍은 것으로도 유명한 그는 프로방스 지방을 대표하는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를에서 당대 가장이었던 파블로 피카소를 만났고, 그에게 반해 그를 기록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클레르그의 사진 원고 수입의 절반이 피카소 사진에서 나올 정도였다. 피카소와의 우정은 1973년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됐다.

아를 국제 사진 축제는 개최 초창기에는 연극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축제였지만, 1974년부터 독립하여 국제 사진 축제가 되었다. 사회변혁운동과 함께 정치, 사회 상황이 맞물렸던 프랑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고,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주축은 안셀 아담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같은 유명한 사진가들을 초청할 수 있었다. 1973년부터 시행된 사진 워크숍은 작가들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었고, 이러한 의미 깊은 네트워크는 아를 국립 사진 학교를 설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아를 지역의 교회와 공장, 개인의 주택 등을 갤러리로 사용하면서 도시의 사적이고 작은 공간까지도 축제의 한 공간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매해 40~60개의 전시와 사진 워크숍, 전시 투어 오프닝, 세미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와의 인연으로는 1977년 김중만 작가가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8년엔 신에 작가 이성희가 꾸르 아르 슈베세에서 열린 브와에 오프 프로젝션 쇼 폐막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그랑프리 수상했다. 올해는 구본창 작가가 큐레이터로 참여한다.

06 June



2014 디토 페스티벌 <모차르트를 찾아서>

2014.06.15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ww.s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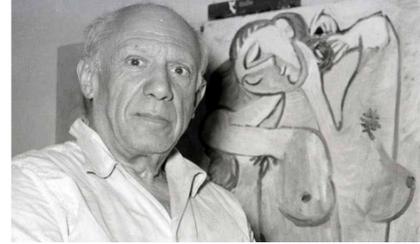
세계를 흔드는 리처드 용재 오닐,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과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펼쳐진다. 예술감독 스테판 블라더의 지휘로 내한하는 VCO는 최고의 모차르트 연주팀으로 정평이 나 있다. 디토의 젊은 아티스트들은 모차르트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 관객들에게 보다 즐겁고, 모험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다.



칸 국제광고제

2014.06.15-06.21 / 프랑스 칸
www.cannesions.com

클리오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히는 칸 국제광고제는 1953년 창설 당시에는 극장용 광고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점차 TV 광고의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제44회 인쇄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와이드 텔레비전이 대회 참가 최초로 금사자상을, 제49회 필름이벤트 프로모션에서 영화 <취화선>이 은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피카소-고향으로부터의 방문

2014.03.12-06.08 / 경기도 문화의전당
www.ggac.or.kr

라스베가스 조명 박람회

2014.06.01-06.05 / 미국 라스베가스
www.lightfair.com

상해 럭셔리 명품관광 박람회

2014.06.02-06.05 / 중국 상해
www.iltm.com/asia

런던 와인 박람회

2014.06.02-06.04 / 영국 런던
2014.londonwinefair.com

07 July



아비뇽 페스티벌

2014.07.04-07.27 / 프랑스 아비뇽
www.festival-avignon.com

프랑스의 유서 깊은 역사 도시, 아비뇽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연극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은 연출가이자 배우인 빌라르가 파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연극의 지방화를 내세우며 창안한 축제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으로써, 매년 이 축제를 통해 뛰어난 잠재력을 갖춘 극작가와 무대 감독, 배우들이 발굴되고 있다. 해마다 색다른 형식과 주제로, 셰익스피어부터 그리스 비극, 프랑스 광대극, 모던 댄스 등에 이르는 국제 공연들이 펼쳐지며, 중세시대 교황청 궁전 마당부터 광장과 거리, 수도원까지 모두 무대로 활용된다. 온 도시가 무대가 되는 형식의 공연과 퍼포먼스는 전 세계인의 발길을 프랑스의 작은 남부 도시로 이끌고 있다.



공공의 장소 :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展

2014.03.29-08.17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동하우스
www.clayarch.org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2014.01.28-07.27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www.mmca.go.kr

뉴욕 앤틱 보석 및 시계 박람회

2014.07.25-07.28 / 미국 뉴욕
www.newyorkantiquejewelryandwatchshow.com

오펜부르크 승마 박람회

2014.07.23-07.27 / 독일 오펜부르크
www.eurocheval.de

08 August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2014.07.25-08.28 / 독일 바이로이트
www.bayreuther-festspiele.de

매해 여름 독일 바이로이트에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선율이 가득 울려 퍼진다. 바그너가 작품의 이상적인 공연을 위해 직접 설계, 건축한 축제 극장의 구조는 다른 극장과는 비교 불가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뛰어난 음향 또한 자랑한다.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특별한 극장에서 전개되는 이 축제 극장의 입장권은 길게는 8년 전에 예매가 끝나기도 한다.



시드니 이벤트 산업 박람회

2014.08.18-08.19 / 호주 시드니
www.inspirex.com.au

시드니 이벤트 산업 박람회는 이벤트 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호주의 프리미어 박람회이다. 올해도 개최되는 이벤트 박람회는 예년에 비해 더욱 새롭고 특별한 산업 정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점점 빠르고 거대하게 변화하는 이벤트 산업 분야의 트렌드,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관한 국제적 기회를 마련할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우람 : 현장제작 설치 프로젝트

2013.11.12-2014.11.09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www.mmca.go.kr

상파울루 자동차 박람회

2014.08.13-08.14 / 브라질 상파울루
www.congresso-fenabreve.com.br

동경 시푸드 쇼

2014.08.20-08.22 / 일본 도쿄
www.exhibitiontech.com/seafood

캐러밴 박람회

2014.08.30-09.07 / 독일 뒤셀도르프
www.caravan-salon.com

09 September



템즈 페스티벌

2014.09.01-09.30 / 영국 런던
totallythames.org

런던의 상징 템즈강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야외 예술 축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도시인 런던을 축하하며 웨스트민스터에서 타워 브릿지까지 템즈강을 줄지어 횡단한 것이 그 유래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찾아 온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악, 무용, 미술, 카니발 등 이색적인 거리 예술을 펼치고 있다. 찬란한 조명들로 반짝이는 런던 아이와 각종 퍼레이드 및 불꽃놀이의 향연이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공연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1997년부터 시작되어 역사가 그리 길진 않은 것에 비해 유명세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9월 한 달 내내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아우그스부르크 골프 박람회

2014.09.28-09.30 / 독일 아우그스부르크
www.golf-europe.com

볼티모어 건설&건축 박람회

2014.09.10-09.11 / 미국 볼티모어
www.constructshow.com

사우샘프턴 보트 쇼

2014.09.12-09.21 / 영국 런던
www.southamptonboatshow.com

파리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박람회

2014.09.09-09.11 / 프랑스 파리
www.viscom-paris.com

EPGA/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PGA 투어 일정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결전, 발렌타인이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EPGA/PGA 투어 일정을 소개한다.

06 JUNE



US 오픈 EPGA PGA

US OPEN

2014.06.12 - 06.15 / Pinehurst Resort&CC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 마스터스 대회와 함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다. 1895년 US 아마추어선수권대회 이후, 미국과 영국 선수들이 실력을 겨룬 데서 비롯됐다. 2차례의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50년 이상 된 컨트리클럽에서만 열린다.

아이리쉬 오픈 EPGA

The Irish Open

2014.06.19 - 06.22
Fota Island Resort / 아일랜드 코크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PGA

Travelers Championship

2014.06.19 - 06.22
River Highlands TPC / 미국 코네티컷 크롬웰

BMW 인터내셔널 오픈 EPGA

BMW International Open

2014.06.26 - 06.29
GC Gut Lärchenhof / 독일 킬른

CVS 케어마크 채리티 클래식 PGA

CVS Caremark Charity Classic

2014.06.23 - 06.24
Rhode Island CC / 미국 로드아일랜드 배링턴

07 JULY



디 오픈 챔피언십 EPGA PGA

The Open Championship

2014.07.17 - 07.20 / Royal Liverpool GC / 잉글랜드 머지사이드 호이레이크

US 오픈과 더불어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브리티시 오픈(The British Open)으로도 불린다. 1860년부터 개최된 가장 유서 깊은 대회로서 오픈 경기의 기원이다. 전 세계 골프의 규칙을 관장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 주관한다.

알스톰 프랑스 오픈 EPGA

Alstom Open de France

2014.07.03 - 07.06
Le Golf National / 프랑스 파리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PGA

The Greenbrier Classic

2014.07.03 - 07.06
The Old White TPC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EPGA

Aberdeen Asset Management Scottish Open

2014.07.10 - 07.13
Royal Aberdeen GC / 스코틀랜드 애버딘

RBC 캐나다인 오픈 PGA

RBC Canadian Open

2014.07.24 - 07.27
Royal Montreal GC / 캐나다 몬트리올

EPGA

유럽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유러피언 투어는 1984년 독립하여 주로 유럽에서 대회가 열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시아, 중동 등 비유럽권에 서 개최되는 비중이 높아졌다. www.europeantour.com

PGA

미국과 북미를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PGA 투어는 매년 1월 초부터 경기를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진행되며,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으로 해마다 수많은 공식 대회를 치르고 있다. www.pgatour.com

08 AUGUST



월드 골프 챔피언십 _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얼 EPGA PGA

World Golf Championships _ Bridgestone Invitational

2014.07.31 - 08.03 / Firestone CC / 미국 오하이오 애크론

WGC 대회는 1년에 4번 열리는 대회로, 세계 6대 투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어 메이저 대회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4대 메이저 대회보다 큰 상금이 주어지며, 각 투어별 최고 선수, 세계 랭킹 상위권의 선수들만 출전하여 수준 높은 승부를 펼친다.

PGA 챔피언십 PGA EPGA

US PGA Championship

2014.08.07 - 08.10
Valhalla GC / 미국 캔터키 루이빌

메이드 인 덴마크 EPGA

Made in Denmark

2014.08.14 - 08.17
Himmerland Golf & Spa Resort / 덴마크 화식

바클레이스 챔피언십 PGA

The Barclays

2014.08.21 - 08.24
Ridgewood CC / 미국 뉴저지 파라무스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PGA

Deutsche Bank Championship

2014.08.29 - 09.01
TPC Boston / 미국 메사추세츠 노턴

09 SEPTEMBER



코카콜라 투어 챔피언십 PGA

Tour Championship by Coca Cola

2014.09.11 - 09.14 / East Lake GC /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

PGA 투어의 플레이오프인 바클레이스,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BMW 챔피언십에 이어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회로, 4개 대회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페덱스컵의 챔피언이 결정된다. 각 대회의 성적에 따라 선수를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코카콜라 투어 챔피언십에는 상위 랭킹 30명만이 출전할 수 있다.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스 EPGA

Omega European Masters

2014.09.04 - 09.07
Crans - sur - Siere GC / 스위스 크랑 - 몬타나

BMW 챔피언십 PGA

BMW Championship

2014.09.04 - 09.07
Cherry Hills CC / 미국 덴버 콜로라도

ISPS 한다 웨일즈 오픈 EPGA

ISPS Handa Wales Open

2014.09.18 - 09.21
The Celtic Manor Resort / 웨일즈 뉴포트

라이더 컵 PGA EPGA

Ryder Cup

2014.09.26 - 09.28
Gleneagles GC / 스코틀랜드 퍼스서

※ EPGA/PGA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입니다.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7년 후에도, 새로운 스타일의
골프 코스를 디자인하기 위해
변함없이 모험을 선택할 것이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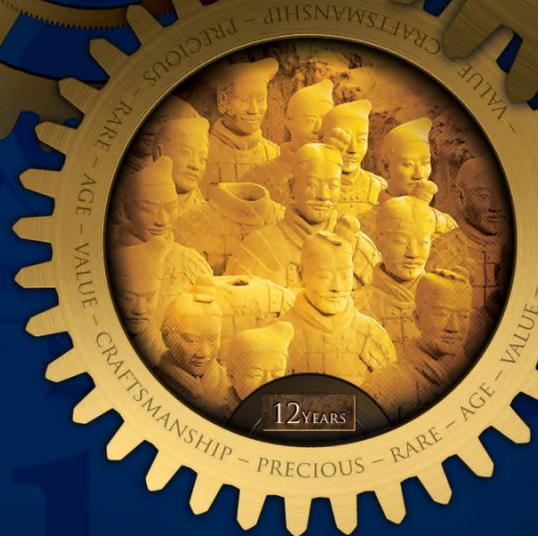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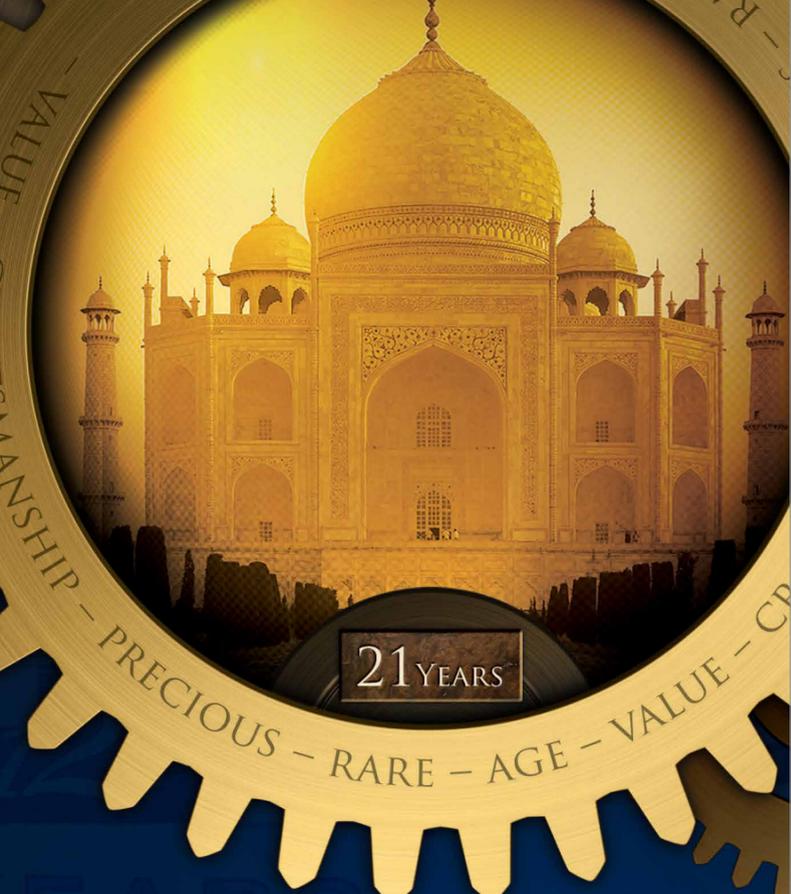
GREAT THINGS TAKE TIME



스카치 위스키 한 모금의 가치, 위스키 라벨에 새겨진 연산의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모든 위대한 것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 스카치 위스키 병에 적힌 연산에는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최상의 자연 조건과 천연 재료들, 마스터 블렌더의 장인정신, 세대를 걸쳐 이어 내려온 집약된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보틀에 적힌 숫자 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한 병의 위스키가 완성됩니다.

Drink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지금, 위스키 라벨의 숫자를 확인하세요.

GREAT THINGS TAKE TIME

시간의 위대함, 그리고 위스키

12년, 17년, 21년, 30년... 위대한 것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카치 위스키 병에 적힌 연도 수에는 수많은 역사와 뜻이 들어 있다. 스코틀랜드 최상의 자연 조건과 천연 재료, 위스키 장인의 정성, 세대를 걸쳐 이어 내려온 집약된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병의 위스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스키 연산, "숫자"가 말하는 역사 그 이상의 가치

스카치 위스키는 병에 든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숙성 연도가 짧은 위스키의 연산을 라벨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령, 18년산 스카치 위스키라면 오크통에서 최소 18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들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연산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품에 포함된 스카치 위스키가 단 3년만 숙성된 위스키라는 의미다. 스카치 위스키의 가장 큰 매력은 완벽한 밸런스다. 이 밸런스는 단지 오크통 속에서 숙성되는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결합에 의해 완성된다.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로얄 샬루트, 더 글렌리벳과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의 장인인 마스터 블렌더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위스키 원액을 새로 만든 위스키 원액과 블렌딩하여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그 빛나는 헤리티지를 이어가다

더 오래 숙성된 위스키일수록 그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다. '엔젤스 셰어'라는 말은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마다 2%의 원액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천사가 마시는 몫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오래 숙성된 위스키일수록 그 양은 점점 줄어들고, 가치는 더욱 귀해진다. 가령 25년 된 위스키라면, 내용물의 50%는 천사가 마신 셈이며 이 말은, 우리가 그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마실 때 우리가 마시는 양과 천사가 마신 위스키의 양이 같다는 이야기이다.

"시바스 브라더스'사의 마스터 블렌더들과 양조자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통찰력과 헌신의 결과물 그리고 100여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경험들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시바스 브라더스'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중 스트라스 아일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증류소에서 처음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엄 위스키 산지의 심장부에 위치한 증류소는 하이랜드의 신등성이 이어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도 이 곳에서는 훌륭한 위스키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천사들도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 오늘날 '시바스 브라더스'사의 오크통에서 보관되고 있는 위스키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완벽한 위스키가 선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위스키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시바스 브라더스의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다.

"시바스 브라더스 : 세계적인 주류 기업인 페르노리카의 스카치 위스키 비즈니스를 담당한다. 럭셔리 스카치 위스키의 글로벌 리더인 시바스 브라더스는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로얄 샬루트, 더 글렌리벳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THE AGE MATTERS

연산, 시간의 흐름을 통해 완성되는 소중한 결과물

향후 스카치 위스키를 마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라벨에 써있는 연산을 체크하고, 그 숫자를 통해 당신이 마시는 위스키가 얼마나 길고 복잡한 여정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곱씹어 보길 권한다. 당신이 마시는 한 모금 한 모금이 더욱 소중한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인도의 타지마할 vs 로얄 샬루트 21 Year Old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궁전 형식의 묘지다. 무굴제국의 황제 샤 자한은 왕비가 죽자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묘를 만들기 위해 결심했고, 22년에 걸쳐 아름답고 완벽한 균형감을 자랑하는 타지마할을 완성했다. '여왕의 술'로 불리는 로얄 샬루트의 복합적이고 완벽한 균형감을 완성하는 데는 21년이 걸리며, 이는 '신이 만든 궁전'으로 평가 받는 타지마할을 짓는 데 걸린 시간과 맞먹는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vs 발렌타인 17 Year Old

'20세기 대표 건축물', '현대건축의 걸작'이란 찬사와 함께 1973년에 완공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디자인, 첨단기술을 이용한 구조 설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예술적인 건축물로 손꼽힌다. 발렌타인 17년 한 병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완벽한 균형감을 이룬 맛을 창조해 내는 데 17년이 걸리며, 이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데 걸린 시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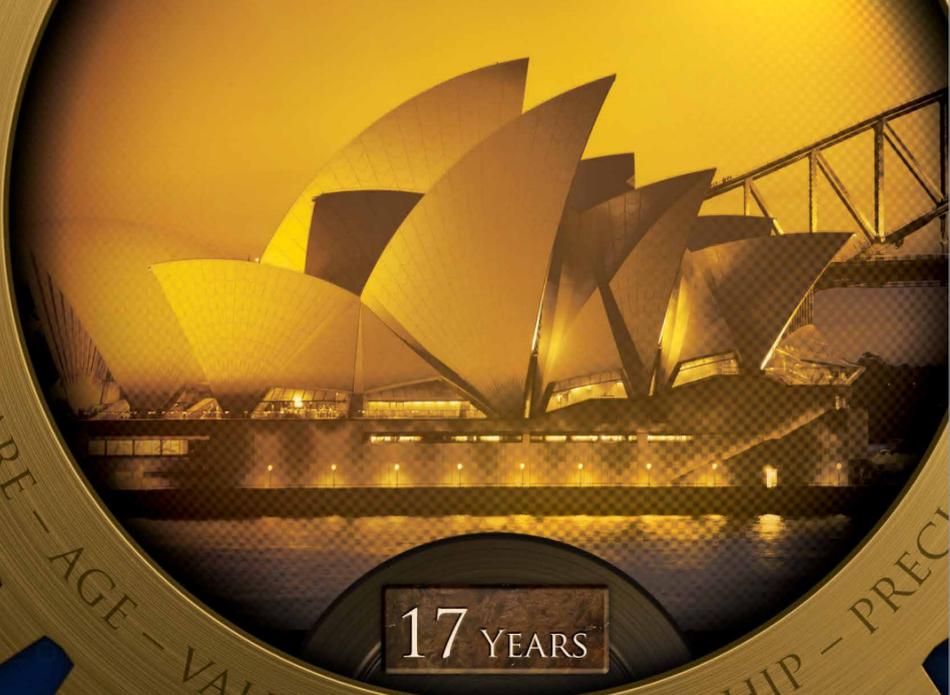
진시황 테라코타 군대 vs 시바스 리갈 12 Year Old

1974년 중국, 땅 속에서 진흙으로 빛은 모형을 발견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실물 크기와 똑같은 병사들과 기마, 이것이 바로 진시황 무덤 속 테라코타 군대이다. 시바스 리갈 한 병의 복합적이고 유연한 맛을 창조해 내는 데는 12년이 걸리며, 이는 1987년 만리장성, 자금성과 함께 중국 최고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천명의 진흙 기마 병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과 같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vs 더 글렌리벳 18 Year Old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기차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빼어난 건축 유산이다. 10만 명의 노동자가 약 18년에 걸쳐서 완성시킨 이 거대한 건축물은 완공된 지 4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조금의 빈틈도 없는 견고한 모습을 자랑한다. 더 글렌리벳 18년의 모든 병이 오크통 속에서 적어도 18년 이상 숙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차의 대형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걸린 시간과 맞먹는 시간이다.





GREAT THINGS TAKE TIME

시간의 위대함, 그리고 위스키

12년, 17년, 21년... 스카치 위스키 병에 적힌 오랜 연도 수에는 수많은 역사와 뜻이 들어있다. 스코틀랜드 최상의 자연 조건과 천연 재료들, 위스키 장인의 정성, 세대를 걸쳐 이어내려온 집약된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병의 위스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스키 연산, “숫자”가 말하는 역사 그 이상의 가치

스카치 위스키는 병 안에 든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숙성 연도가 짧은 위스키의 연산을 라벨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17년산 스카치 위스키라면 오크통에서 최소 17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들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로알 샬루트와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브랜드의 장인인 마스터 블렌더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복합적이고 리치한 위스키 원액을 새로 만든 위스키 원액과 블렌딩 하여 밸런스를 정교하게 맞추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연산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품에 포함된 스카치 위스키가 단 3년만 숙성된 위스키라는 의미이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그 빛나는 헤리티지를 이어가다

‘엔젤스 셰어’라는 말은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마다 2%의 원액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바로 천사가 마시는 몫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오래 숙성된 위스키일수록 그 양은 점점 줄어 들고, 가치는 더욱 귀해진다. 30년 된 위스키라면, 내용물의 60%는 천사가 마신 셈이며 이 말인즉, 우리가 발렌타인 30년 한 병을 마실 때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천사가 마신 위스키의 양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시바스 브라더스’사의 장인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통찰력과 헌신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시바스 브라더스’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중 스트라스 아일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증류소에서 처음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엄 위스키 제조지의 심장부에 위치한 증류소는 하이랜드의 산등성이가 이어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100여 년을 이어져 내려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두 명의 마스터 블렌더들과 뛰어난 예술성과 재능을 지닌 양조자들이 지금도 이 곳에서 훌륭한 위스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날 ‘시바스 브라더스’사의 오크통에서 보관되고 있는 위스키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완벽한 위스키가 선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위스키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시바스 브라더스의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다.

1)시바스 브라더스 : 세계적인 주류기업인 페르노리카에 속한 그룹사로서 글로벌 리딩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인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알 샬루트, 더 글렌리벳 및 프리미엄 진 비피터를 소유하고 있다.



THE AGE MATTERS

연산, 시간의 흐름을 통해 완성되는 소중한 결과물

향후 스카치 위스키를 마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라벨에 써있는 연산을 체크하고, 그 숫자를 통해 당신이 마시는 위스키가 얼마나 길고 복잡한 여정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곰씹어 보길 권한다. 당신이 마시는 한 모금 한 모금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vs 발렌타인 17 Year Old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세기 대표 건축물’, ‘현대건축의 걸작’이란 찬사와 함께 1973년에 완공되었다. 흰 조개 껍질을 닮은 독특한 외관의 오페라 하우스 지붕은 당시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시켜 수 차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될 수 있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디자인, 첨단기술을 이용한 구조 설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예술적인 건축물로 손꼽힌다. 발렌타인 17년 한 병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완벽한 균형감을 이룬 맛을 창조해내는데 17년이 걸리며 이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걸린 시간과 동일하다.



BALLANTINE'S DIGITAL MAGAZINE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더 풍부해진 콘텐츠로 발렌타인 매거진을 즐기다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

발렌타인 매거진은 지난해 11월 고객들의 스마트해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독할 수 있는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을 런칭했다. 2011년부터 발행된 '발렌타인 매거진'은 발렌타인의 신제품 런칭, 챔피언십, 테이스팅 클래스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발렌타인의 역사와 브랜드 헤리티지까지 두루 아우르며 발렌타인만의 특별한 서사를 전해 오고 있는 매거진이다.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은 애플 앱스토어 '뉴스 가판대'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퍼블리싱 서비스 분야 1위 어플 '탭진(Tapzin)'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기존 매거진에서 소개되었던 콘텐츠 중 한정된 지면의 한계로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콘텐츠를 태블릿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면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발렌타인 매거진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예정이다. 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매거진을 읽다가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지면에 다 실지 못했던 현장 사진들을 손으로 넘겨가며 감상할 수도 있다.

한편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을 통해 온라인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만나 볼 수 있다. 앞서 진행된 런칭 기념 이벤트, 발렌타인 스노골프 초청 이벤트, 발렌타인 팝업바 이벤트를 통해서 런치&디너 식사권, 발렌타인 위스키, 발렌타인 17 칵테일, 스노골프 라운딩 티켓 등이 매거진을 다운로드 받은 독자들에게 증정되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또한 탭진에서는 지난 6월 16일까지 발렌타인 17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프로 모션'을 기념하며 온라인 상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처럼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은 현재 4호부터 8호까지 정식으로 구독할 수 있다.

>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 이용 방법

방법 1 |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나 애플 앱스토어(애플 기기 이용자)에 접속한 후, 영문으로 'Ballantine's magazine' 또는 한글로 '발렌타인 매거진'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방법 2 | '탭진(Tapzin)' 어플을 설치한 후, '발렌타인 매거진'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탭진의 시사/경제/재테크 또는 패션/스타일 또는 스포츠 카테고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추천 카테고리에서도 발렌타인 매거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 중 이미지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프레임 버튼(⌂)을 터치하면 더 많은 사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렌타인 매거진을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ALLANTINE'S MEMBERSHIP CLUB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이드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의 장으로써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품격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입 안내

발렌타인이 발급한 인증번호를 아래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 [_www.ballantinesmc.com](http://www.ballantinesmc.com)

문의 [_발렌타인 마케팅팀 02-3466-5700](tel:02-3466-5700)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혜택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골프에서 응용한 독특한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입니다.
회원 분들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샷(Shot)이 주어지며,
샷 적립에 의한 등급에 따라 발렌타인만의 독특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클럽 내의 유용한 소모임을 통해 인맥의 폭을 더욱 넓히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및 다양한 행사 초대

A.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초대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는 위스키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 브랜드 스토리부터
위스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테이스팅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클래스에 참가하신 분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발렌타인 관련 행사 주최

발렌타인은 신제품 출시 행사 및 다양한 럭셔리 파티를 준비 중이며, 신제품
런칭 시에는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회원 분들께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기 플레이어 이상 등급 회원은 행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이벤트에는
본인을 포함한 동반 1인이 초대되고 100샷이 차감됩니다.

02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내 다양한 이벤트 참여 및 스폰서 활동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월별/분기별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프리미엄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스폰서 요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파티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샷 차감은 없습니다.

03

발렌타인 제휴 바 예약 서비스 제공

발렌타인 제휴 바를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약(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휴 바 페이지의 '예약하기'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추후 이용 후기를 올려 주실 경우 다양한 추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04

발렌타인 제휴 매장 혜택

발렌타인과 제휴 매장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매장들과의 제휴를 통해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께 더욱 특별한 서비스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각 제휴 매장 할인,
프로모션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또한 바 이용 후기를 올리실 경우 20샷이 제공됩니다.

05

회원 가입 시 멤버십 클럽 카드 발급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시는 회원 분들께 제휴 바 등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원 번호가 담긴 발렌타인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www.ballantinesmc.com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8th. vol. Ballantine's Magazine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콘텐츠를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Ballantine's

발행일
June 2, 2014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ballantinesmc.com

Planning & Design
(주)헤즈
www.heaz.co.kr

Edit
(주)헤즈

Photographer
송상섭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 매거진〉 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ELEMENTAL
CHLORINE
FREE
GUARANTEED

